

Nov. 2023

2022 한국 ESG 금융백서

KOREA ESG FINANCE WHITE PAPER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www.kosif.org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rea Sustainability Investing Forum)은 2007년 사회책임투자(SRI)의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SRI 연구·개발, 홍보·확산, 정책개발·입법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의 환경 대응을 확산하기 위해 CDP 한국위원회를 주도적으로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외 TCFD, PACF, RE100, EV100, SBTi 등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한국 금융기관과 기업에 확산시킴으로써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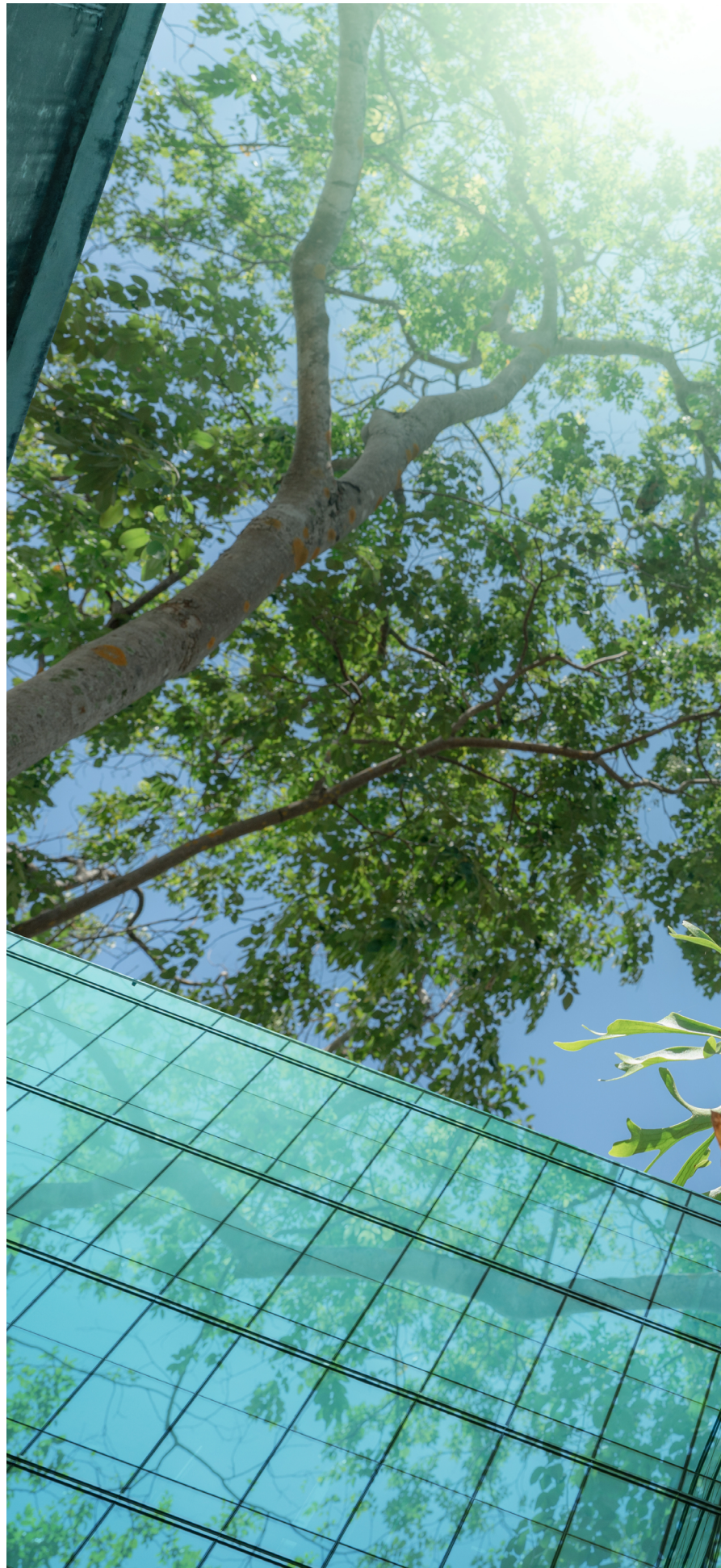
이용우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으로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서울대에서 경제학 학사, 석사, 박사를 마치고 기업에서 투자 및 채권, 자산, 신탁운용을 담당하고 2016년에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를 맡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는 등 경제와 금융 분야의 실무를 거친 경제전문가다. 2020년, 국회에서 ESG채권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2021년에는 국정감사에서도 ESG 활성화에 관한 정책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ESG금융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공적기관과 민간기관에 ESG투자 현황 자료를 요청하고 수집하여 보고서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였다.

발간정보

제목	2022 한국 ESG금융 백서
발간일	2023년 11월 29일
보고서 작성·편집	박남영, 김민아, 김태한, 이진주, 정유민
디자인·제작	좋은PR소아

본 보고서 전체 혹은 일부를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출처와 저작권을 표기하고 위에 열거된 당사자에게 저작권이 있음을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Contents

발간사

김영호 이사장,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03](#)

이용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04](#)

Executive Summary [06](#)

한국 ESG금융 전체 현황 [10](#)

ESG금융 유형별 세부 분석

ESG투자 [17](#)

ESG대출 [20](#)

ESG채권발행 [24](#)

ESG금융상품 [28](#)

ESG금융 이슈 보고

국민연금의 ESG투자 [32](#)

분류체계와 지속가능공시 [34](#)

ESG금융 목표 현황 [38](#)

부록

설문조사 및 분석 방법론 [42](#)

ESG금융 응답기관 [43](#)

발간사

김영호 이사장,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03
이용우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04



전 세계는 지금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생태위기, 빈곤과 불평등, 극단적 양극화, 다가오는 AI 시대의 불안과 불확실성 등은 인류가 지속가능성을 추구해야 하는 근본적인 동인입니다. 단기적이고 경쟁적이며 배제적인 주주 자본주의는 생태, 사회, 경제 모두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자, 오래된 지도를 버리고 새로운 지도를 찾아 나섰습니다. 이 항해의 도구 혹은 나침반이 바로 CSR, ESG이며, ESG로 대표되는 지속가능금융은 그 항해의 동력입니다.

ESG 시대입니다. 미국에서 반(反) ESG(Anti-ESG) 정책과 법안이 제출되고 일부는 통과되는 등 반대로 거세지만 대세를 뒤집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ESG 선순환 생태계를 위한 법과 제도와 정책이 EU로부터 시작하여 이미 여러 나라로 확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대규모의 자본이 ESG라는 이름으로 유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GSIA(국제지속가능투자협회)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전 세계 ESG투자는 35조 3000억 달러에 이릅니다. 도이치뱅크는 ESG 의무 규제가 지속될 경우 2035년에는 160조 달러에 이르게 된다고 전망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응을 위한 넷제로를 표방하는 글래스고 금융연합인 GFANZ에 참여하는 금융기관들의 운용자산 규모만 해도 150조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나라도 ESG금융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말 기준 국내 ESG금융 규모는 1,098조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39.7%, 311.9조 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년 대비 ESG투자는 100.5%, ESG대출은 12.6% 증가했고, ESG금융상품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ESG채권만이 13.3% 하락하였습니다. 경기침체로 ESG금융이 둔화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예상 외로 큰 폭의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국민연금의 ESG투자가 대폭 증가한 때문입니다. 384조 원으로 전년 대비 253조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심각하게 경계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ESG워싱입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ESG투자’ 규모와 관련하여 ‘ESG워싱’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ESG워싱은 지속가능성

을 위협하는 최대의 복병입니다. 사회 변화를 위한 실질적인 자본의 이동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ESG 선진국인 유럽연합과 미국 등 주요국에서 ESG워싱 방지 정책을 마련하고 강화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3년 10월 금감원에서 ‘ESG펀드에 대한 공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매년 발간하는 ‘한국 ESG금융 백서’에는 ESG라는 이름으로 된 국내 공적금융과 민간금융의 ESG 규모와 동향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ESG금융이 건전한 생태계 안에서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ESG금융 백서가 금융기관만이 아니라 금융정책 당국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ESG와 관련한 동향을 이해하고 논의하며, 바람직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보고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장

김영호



ESG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 되었습니다.

기후 위기와 지속가능성이 주요 경제 화두로 떠오르며 ESG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 되었습니다. 작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에너지 가격 상승, 초인플레이션의 영향에도 세계 주요국은 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나가고 있습니다.

EU는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을 발표했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후공시 의무화를 발표했습니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올해 글로벌 공시 최종안을 발표하며 국제 사회에서 통용되는 ESG공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상황은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요국의 ESG 성과 평가 실태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주요 글로벌 ESG 평가사의 점수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기업은 17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기업의 ESG 성과 관리를 개선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ESG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문제의 해결은 진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국내 공적 금융기관과 민간 금융기관의 ESG금융 방식과 규모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2020년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함께 국내 최초로 한국 ESG금융 백서를 발간했으며, 올해 세 번째 백서를 발간합니다. 그간 백서를 통해 정리한 자료를 살펴보면, 2021년 말 기준 ESG금융 전체 규모는 787조 원이었으나, 2022년 말 기준 1,097조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민간금융의 규모는 361조 원에서 390조 원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전체적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ESG금융이 확대되고 있는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ESG는 투자 의사 결정 시 기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써, 투명한 공시를 통해 시장의 자율적인 투자 판단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세계 각국은 민간의 주도로 ESG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국제회계기준재단(IFRS재단)은 순수 민간기구이며, 글로벌 ESG공시 기준을 마련하는 ISSB도 민간이 주도하는 글로벌 협의체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ESG 전환을 정부가 주도하는 양상을 보여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올해 금융위원회는 당초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완료하기로 발표한 단계적 ESG공시 의무 도입을 1년 이상 잠정 연기했습니다. 미 증권거래위 예비안에 따른 미국 상장 한국 기업의 공시 시점은 2024년이고, 유럽 CSRD 의무공시는 2025년입니다. 글로벌 ESG공시 의무 적용 시점에 대응하기에 정부의 정책 결정은 매우 안일한 수준입니다.

향후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제고하기 위해 보다 빠른 ESG공시 의무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지난 2022년, 상장법인의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SG 사항을 2024년부터 사업보고서 등에 의무적으로 기재·공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세 번째 한국 ESG금융 백서 또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한국 ESG금융 현황 파악을 시작으로 앞으로 ESG 활성화 및 제도화 관련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입법을 통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용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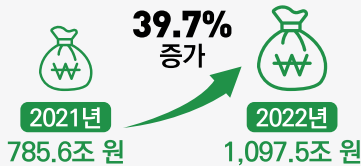
Executive Sum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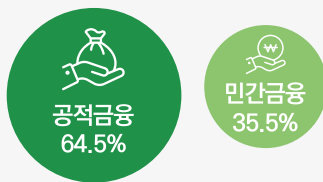
Executive Summary

ESG금융 전체 현황

ESG금융 규모



ESG금융 섹터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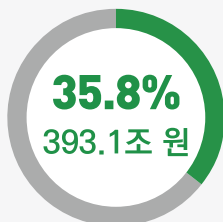


- 2022년 말 기준 설문에 응답한 국내 금융기관 ESG금융 총 규모는 1,097.5조 원(응답 금융기관 총 금융자산 대비 16.9%)으로 전년 785.6조 원(응답기관 총 금융자산 대비 12.1%) 대비 39.7%(311.9조 원) 성장, 주요 원인은 급격히 증가한 국민연금의 ESG투자 규모(2022년 말 기준 384.1조 원, 성장액: 254조 원).
- 섹터별로는 공적금융이 708.3조 원으로 전체 ESG규모의 64.5%, 민간금융은 390.2조 원으로 35.5%를 차지.
- 공적금융은 국민연금의 급성장으로 작년 대비 70.6% 성장. 기관별 비중은 국민연금(총 공적금융의 54.2%), 한국주택금융공사(17.2%), KDB산업은행(9.1%) 순으로 조사됨.
- 민간금융은 390.2조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5.1%). 은행권이 전체의 71.8%로 비중이 가장 크고, 생명보험 11.4%, 손해보험 8.7%, 증권사 4.9%, 기타(자산운용사 포함) 3.2%의 순.
- 유형별 비교에서는 ESG투자 557.6조 원(총 ESG금융 규모의 50.8%), ESG대출 393.1조 원(35.8%), ESG채권발행 76.3조 원(7.0%), ESG금융상품 70.6조 원(6.4%) 순서로 ESG투자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됨.

유형별 ESG금융



총 ESG금융 규모 중 ESG투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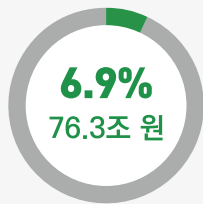
총 ESG금융 규모 중 ESG대출 비중

ESG투자

- 국내 금융기관의 ESG투자 규모는 557.6조 원으로 전년 대비 100.5%의 큰폭으로 성장. 이는 국민연금이 위탁자산 중 '책임투자형'만을 ESG투자로 집계하던 기준을 확대, 2022년부터 스튜어드십코드 및 책임투자 지침을 마련한 운용사에 위탁한 자산(284.4조 원) 전체를 ESG투자로 집계하면서 그 규모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
- 유형별로는 주식 277.7조 원, 채권 251.8조 원, 대체투자 28.2조 원의 순으로, 주식과 채권 투자의 규모가 전년 대비 각 177.5%, 66.5%의 급격한 성장률을 보임.

ESG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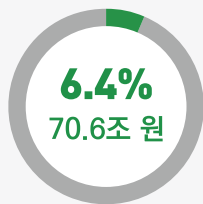
- 총 규모는 393.1조 원으로 전년 대비 12.6% 성장.
- 유형별로는 기업대출 232.1조 원(총 ESG대출의 59.1%), 개인대출 134.8조 원(34.3%), 프로젝트파이낸싱^{PF, Project Financing} 26.2조 원(6.7%)의 순으로, 기업대출이 전년 대비 15.0%의 성장률을 보이며 ESG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금리인상과 경기악화로 인한 채권시장 침체로 기업대출 규모가 늘었기 때문.
- ESG대출은 기술금융, 중소기업 지원 등과 같은 사회(S) 영역의 규모가 전체 ESG대출의 74.6%로 가장 크고, 환경(E)은 23.2%, ESG통합이 2.2%.



총 ESG금융 규모 중 ESG채권발행 비중

ESG채권발행

- 2022년 채권발행 총 규모 76.3조 원으로 전년 대비 13.3% 하락. 급격한 금리인상과 경제 둔화, 재생에너지 투자 감소가 원인으로 분석됨.
- 유형별로는 사회적채권이 전체 ESG채권의 75.2%로 압도적 비중.



총 ESG금융 규모 중 ESG금융상품 비중

ESG금융상품

- 2022년 ESG금융상품 규모는 70.6조 원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2021년 70.6조 원).
- 금융상품별로는 예·적금 40.3조 원(총 ESG금융상품의 57.2%), 보험 18.4조 원(26.0%), 펀드(리테일) 7.4조 원(10.5%), 카드 4.5조 원(6.3%)으로 예/적금 규모가 절반 이상 차지.

ESG금융 목표

ESG금융 목표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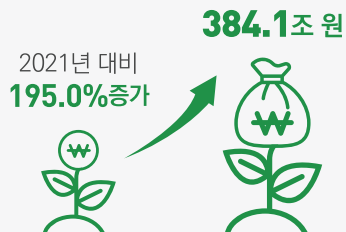
응답기관 171개 중
45개 기관(26%)



- 응답 기관 171개 중 45개 기관(26%)이 ESG금융 목표를 수립. 2021년에는 44개(26%)로 2020년 32개(24%)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나, 2022년에는 다소 주춤.
- 목표 수립 기준은 '기타'를 선택한 기관이 17개, '목표 연도 잔액기준'이 10개, '목표 연도 투입금액' 7개, '투입자금 누적금액' 5개, 기준 미보고 6개 등으로 목표 연도와 기준이 금융기관별로 달라 명확한 비교 불가. 미래 자금 흐름 예측과 ESG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일관된 기준 마련이 요구됨.

국민연금의 ESG투자

ESG투자 규모



- 2022년 말 기준 국민연금의 총 운용자산은 890.5조 원으로 6.1% 감소.
- 반면, ESG투자 규모는 384.1조 원(전년 대비 195.0%)으로 급격히 성장.
- 국민연금의 책임투자기준확대 정책에 따라 'ESG투자'로 집계된 위탁운용자산은 총 284.4조 원이며, 이는 총 ESG투자 규모의 74%에 해당하는 금액.
- 실제 위탁운용되는 자산에 대한 평가 및 모니터링 없이 정책과 시스템 등 조직에 대한 평가만으로 위탁자산 전체를 책임투자로 분류하는 것은 ESG위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음.
- 위탁운용 자산에 대한 적극적 관리 및 평가 등이 마련되어야 하고,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한 면밀한 관리가 요구됨.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안 시행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 또는 적용 계획



응답기관 171개 중
72개 기관
(공적 13개, 민간 59개)

- 2022년 12월 환경부가 확정,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안이 2023년 1월부터 시행.
- LNG에 이어 원자력 부문, 즉 i) 원자력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 실증은 '녹색부문'에, ii) 원자력 발전은 '전환 부문'에 포함된 것이 핵심¹
- 설문지에 응답한 171개 기관 중 2022년 말 기준 72개 기관(공적 13개, 민간 59개)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적용하거나 적용계획이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전년도 66개 기관 대비 소폭 증가한 수치.
- 2022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대출 건수는 23건, 규모는 3.1조 원(총 ESG대출 규모의 0.8%). 채권의 경우 한국형 녹색채권가이드라인(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준)을 적용한 발행 건수는 5건, 0.5조 원(총 ESG채권발행 규모의 0.7%)으로 미미한 수준.
- 사회적분류체계에 대한 국제 시장의 논의도 계속되고 있음. 국내에서도 2023년 'ESG고도화 방안'을 통해 소셜택스노미를 마련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으나 아직 구체화된 내용은 없음.
- 국내 ESG금융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S) 관련 ESG금융 활동이 소셜위험수단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 '한국형 소셜택스노미' 개발이 시급.

공시 기준 발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ISSB

IFRS S1 일반요구사항

단기, 중기,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자본 비용에 대한 정보 공시를 요구 (TCFD 권고사항 통합)

IFRS S2 기후관련공시

단기, 중기,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자본 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 공시 요구

- 지속가능금융공시에 대한 국제 시장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 가운데 국내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5일 'ESG펀드에 대한 공시기준'을 발표함. 2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
- 펀드 공시기준 도입을 통해 투자자는 ESG펀드의 중요사항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아 투자 결정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사는 사전에 공시한 대로 책임 있는 운용을 함으로써 ESG펀드의 그린워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2023년 6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는 세계 최초로 국제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서를 발표. 이 기준서는 IFRS S1(일반 요구사항)과 S2(기후 관련 공시 요구사항)로 구성. 기후재무정보공시협의체^{TCFD, Taskforce on Climate Financial Disclosure}의 권고안을 통합하여 제정.
- 공시기준은 2025년 시행(2024년 실적 기준). 단, S1공시와 S2 중 Scope 3에 대한 공시의무는 1년간 유예.
- 유럽연합은 기업지속가능성보고 기준^{ESRS,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을 승인,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이고, 미국 또한 증권거래위원회^{SEC, Securities & Exchange Commission}에서 기후관련 공시지침을 마련, 의견수렴 중.
- 한국회계기준원은 2022년 12월 산하에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를 설립, 국내 기업 기후공시 기준을 수립 중.
- ESG공시의무화 시행시기는 당초 자산규모에 따라 2025년부터 시행하기로 밝힌 바 있으나, 올 10월 이를 2026년 이후로 1년 이상 유예한다고 발표.

1. K-택스노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녹색경제활동을 '녹색부문'과 '전환부문' 2가지로 나누어진다. 녹색부문은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같이 진정한 녹색 경제활동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포함하고, 전환부문은 탄소중립이라는 최종지향점으로 가기 위한 중간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으로 한 시적(2030년~2035년)으로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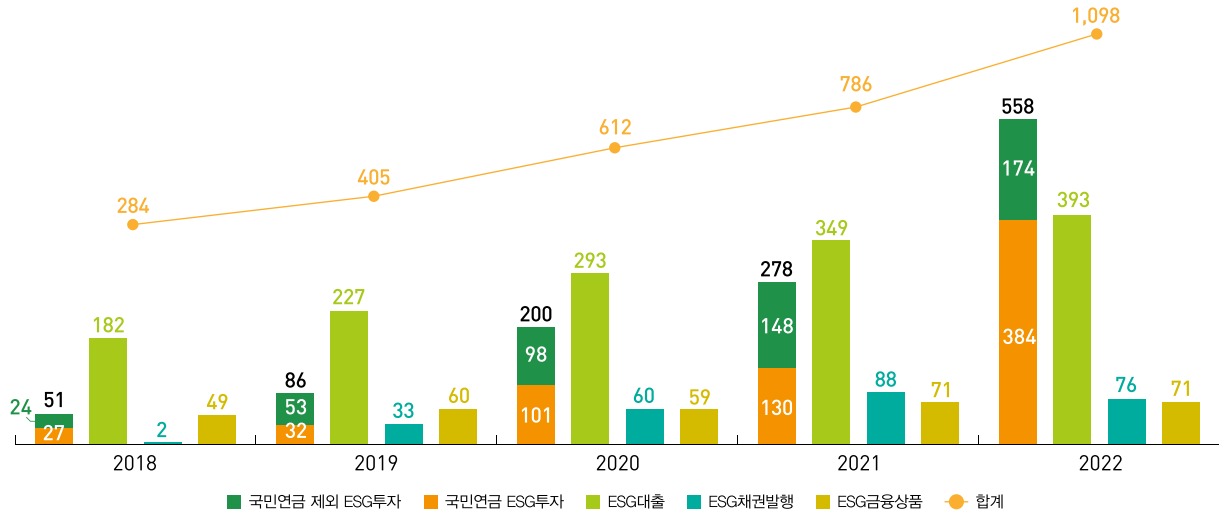
한국 ESG금융 전체 현황

한국 ESG금융 전체 현황

한국 ESG금융 규모

그래프 1 연도별 ESG금융유형 규모 추이

단위: 조 원



2022년 말 기준 응답 기관 전체 운용자산(AUM)은 6,505.1조 원으로 작년 대비 0.5% 증가하였다. 이 중 공적 금융의 AUM은 2,253조 원, 민간금융은 4,252조 원으로 두 부문 모두 전년 대비 각 1%, 0.2%의 소폭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반면, 2022년 말 기준 응답 기관의 총 ESG금융 규모는 1,097.5조 원으로 큰 폭 성장했다. 이는 응답 금융기관 총 AUM의 16.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전년도의 경우 ESG금융 규모는 총 AUM 대비 12.1%였다.

2022년 국내 ESG금융의 큰 폭 성장을 견인한 것은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195%(253.9조 원) 성장하였는데 이는 2022년 국내 ESG금융 총 증가액 311.9조 원의 8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국내 금융기관의 2022년 ESG금융 규모도 ESG대출, ESG투자 부문 등의 성장으로 8.7% 증가하였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총 ESG금융 규모는 713.4조 원으로 총 AUM 대비 12.7%를 차지한다. 이는 국민연금 포함 전 금융기관의 ESG금융 규모 비율 16.9% 대비 4.2%가 차이난다.

유형별 ESG금융

표 1 ESG금융 유형 분류 기준

유형	ESG투자(사회책임투자)	ESG대출	ESG채권발행	ESG금융상품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군별: 주식 · 채권 · 대체투자 지역별: 국내 / 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대출 기업대출 프로젝트파이낸싱(PF)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행기관: 금융권 · 비금융권 발행유형: 녹색 · 사회적 · 지속가능 · 지속가능연계 채권 채권발행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 총 판매액(원수보험료) 예/적금: 수신금액 카드: 카드 사용액 펀드(리테일): 펀드 판매액

2022년 말 기준 i) ESG투자 557.6조 원(50.8%), ii) ESG대출 393.1조 원(35.8%), iii) ESG채권발행 76.3조 원(6.9%), iv) ESG금융상품 70.6조 원(6.4%)으로, 이 중 ESG투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규모 557.6조 원

전체 ESG금융 규모의

50.8%

전년 대비
성장률 100.5%



규모 393.1조 원

전체 ESG금융 규모의

35.8%

전년 대비
성장률 12.6%



규모 76.3조 원

전체 ESG금융 규모의

6.9%

전년 대비
성장률 -13.3%



규모 70.6조 원

전체 ESG금융 규모의

6.4%

전년 대비
성장률 0%



ESG투자

ESG투자는 주식투자 277.7조 원(49.8%), 채권투자 251.8조 원(45.1%), 대체투자 28.2조 원(5.1%)으로 주식투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2년 ESG투자 규모가 100.5%(280조 원)의 성장을 기록한 것은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규모가 전년 대비 195%(254조 원) 증가한 것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나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도 ESG투자 규모는 173.5조 원으로 전년의 147.9조 원 대비 17.3%(25.6조 원) 증가하였다. 이는 채권투자의 성장(22.7조 원)을 반영한 것이다.

ESG대출

ESG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기업대출로 2022년 말 기준 잔액이 232.1조 원(ESG대출액의 59.1%)으로 조사되었다. 기업대출의 규모는 전년 대비 15.0% 성장하였다. 이는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채권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환율급등,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자금 수요가 커진 기업들이 은행 대출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ESG영역별로는 사회(S) 영역 대출이 전체의 74.6%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다음으로 환경(E) 23.2%, ESG통합 2.2%의 순이다.

ESG채권발행

유형별로는 사회적채권 57.4조 원, 지속가능채권 10.1조 원, 녹색채권 8.9조 원으로, 작년의 각 57.2조 원, 16.6조 원, 14.2조 원 대비 전반적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채권 발행 비용 증가와 불안정한 정세로 인한 재생에너지 투자 위축이 원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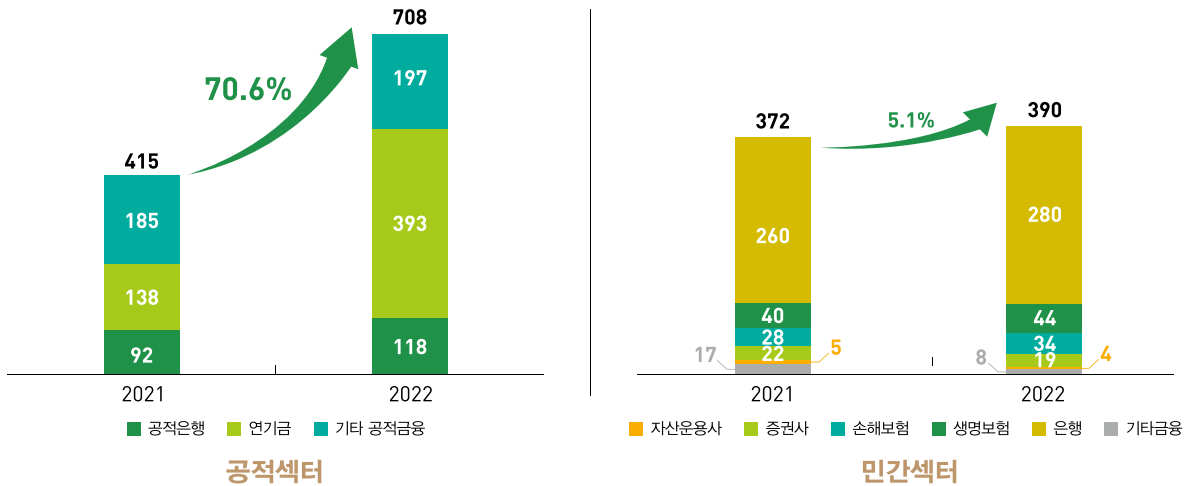
ESG금융상품

ESG금융상품은 예/적금 57.2%로 과반을 차지하고, 보험 26.0%, 펀드(리테일) 10.5%, 카드 6.3%의 순이다. 영역별 비중은 사회(S)영역 59.2%, 환경(E)영역 38.3%, ESG통합이 2.5%로 나타났다.

섹터별 ESG금융

그래프 2 섹터별 전년 대비 ESG금융 규모

단위: 조 원



공적섹터

규모 708.3조 원 · 총 국내 ESG금융의 64.5%, 전년 대비 70.6% 성장, 국민연금의 ESG금융 규모의 급성장을 반영.

2022년 공적섹터의 ESG금융 규모는 2021년 대비 70.6%(293.1조 원) 성장한 708.3조 원으로 총 국내 ESG금융의 64.5% (2021년 52.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민간금융 390.2조 원의 두 배 가까운 규모이다.

이처럼 공적섹터의 ESG금융이 급성장한 것은 국민연금의 ESG규모 성장이 가장 큰 원인으로, 공적섹터의 성장액 293.1조 원 중 86.6%인 254조 원이 국민연금의 ESG금융 규모 증가액이다. 국민연금은 2022년 ESG투자 기준을 확대하면서 ESG투자규모를 2021년 대비 195.0% 성장한 384.1조 원으로 발표하였고, 이 금액은 총 공적섹터 ESG금융 규모의 54.2%를 차지한다.

국민연금 다음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22조 원(17.2%), 한국산업은행이 64조 원(9.1%)의 순서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 2021년 대비 10조 원 성장하였는데, 대부분이 주택금융 관련 대출, 보증이다.

민간섹터

규모 390.2조 원 · 총 국내 ESG금융의 35.5%, 전년 대비 5.1% 성장, 은행권의 비중이 71.8%로 가장 높음.

민간금융 섹터의 ESG금융 규모는 390.2조 원으로 전년 대비 5.1%의 성장을 기록했다. 기관별로는 은행이 280.0조 원(민간 ESG금융의 71.8%), 생명보험 44.5조 원(11.4%), 손해보험 34.0조 원(8.7%), 증권사 19.2조 원(4.9%), 자산운용사 4.2조 원(1.1%)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은행의 ESG금융 규모가 7.9% 성장하면서 민간금융의 성장을 견인하였다.

특히 은행권의 기업대출(민간 ESG금융의 86.6%)이 135.1조 원으로 전년 대비 7.4%(9.3조 원) 성장하였는데 이는 기업들이 환율 상승, 에너지 가격 급등 등으로 늘어난 자금 수요를 침체된 채권시장보다 은행권 대출로 조달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요 금융기관 ESG금융

표 2 ESG금융 규모 상위 5개 기관 유형별 현황

단위: 조 원

		ESG금융 전체 규모		ESG대출		ESG투자		ESG금융상품		ESG채권발행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공적	국민연금기금	130	384	0	0	130	384	0	0	0	0
	한국주택금융공사	112	122	112	121	0	1	0	0	0	0
	KDB산업은행	45	64	42	52	3	5	0	0	0	7
	중소기업은행	22	33	12	16	8	11	2	2	0	3
	한국수출입은행	13	22	13	19	0	0	0	0	0	3
민간	NH농협은행	88	94	45	57	10	11	33	25	0	2
	우리은행	58	56	48	44	9	10	0	0	0	1
	신한은행	34	41	27	27	6	7	1	2	0	5
	KB국민은행	31	43	13	15	12	15	7	10	0	3
	하나은행	19	26	8	9	10	15	0	1	0	1

기관별 규모

전체 금융기관 중 ESG금융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국민연금. 민간섹터에서는 NH농협은행이 2년 연속 1위 차지.

공적섹터의 경우, 국민연금(384.1조 원), 한국주택금융공사(121.9조 원), KDB산업은행(64.4조 원)의 순서로, 상위 3개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ESG금융규모는 국내 전체 ESG금융 1,097.5조 원의 52.0%, 공적섹터 708.3조 원의 80.5%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의 ESG투자 규모는 195.0%의 급성장을 기록하며 국내금융기관 중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고, 2021년 1위였던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국민연금의 ESG금융 규모 확대로 2위에 위치하고 있다.

민간섹터에서는 NH농협은행(94.5조 원), 우리은행(55.6조 원), KB국민은행(42.5조 원)의 순으로, 3개 금융기관의 ESG금융 규모는 민간섹터의 49%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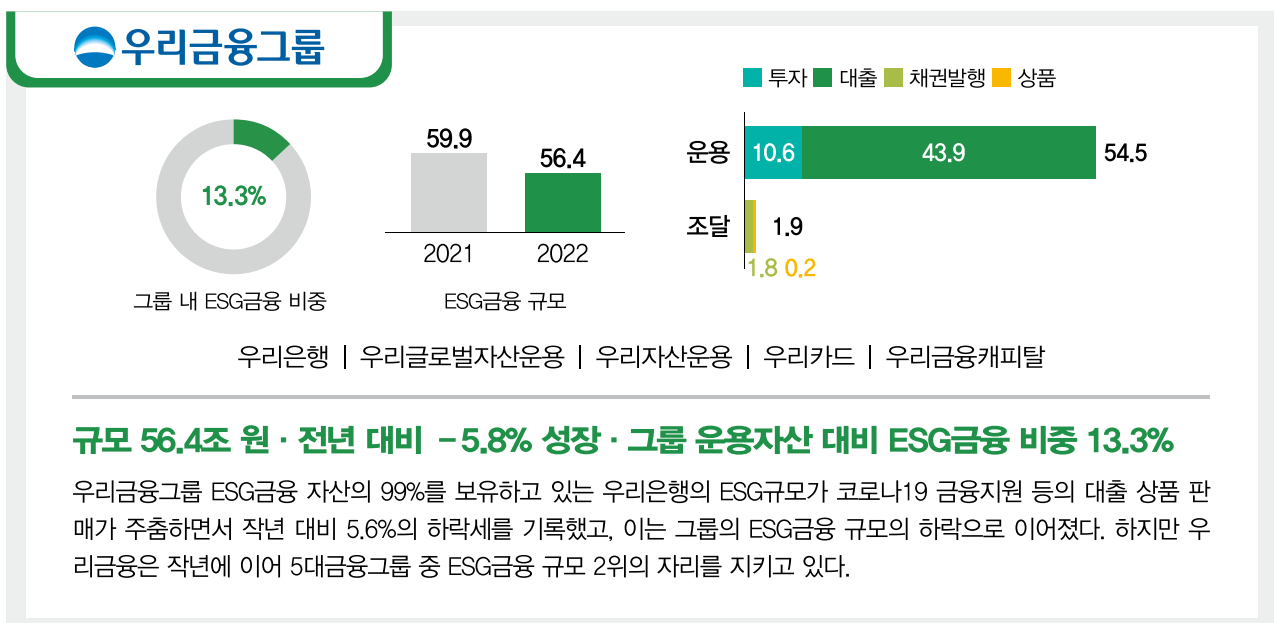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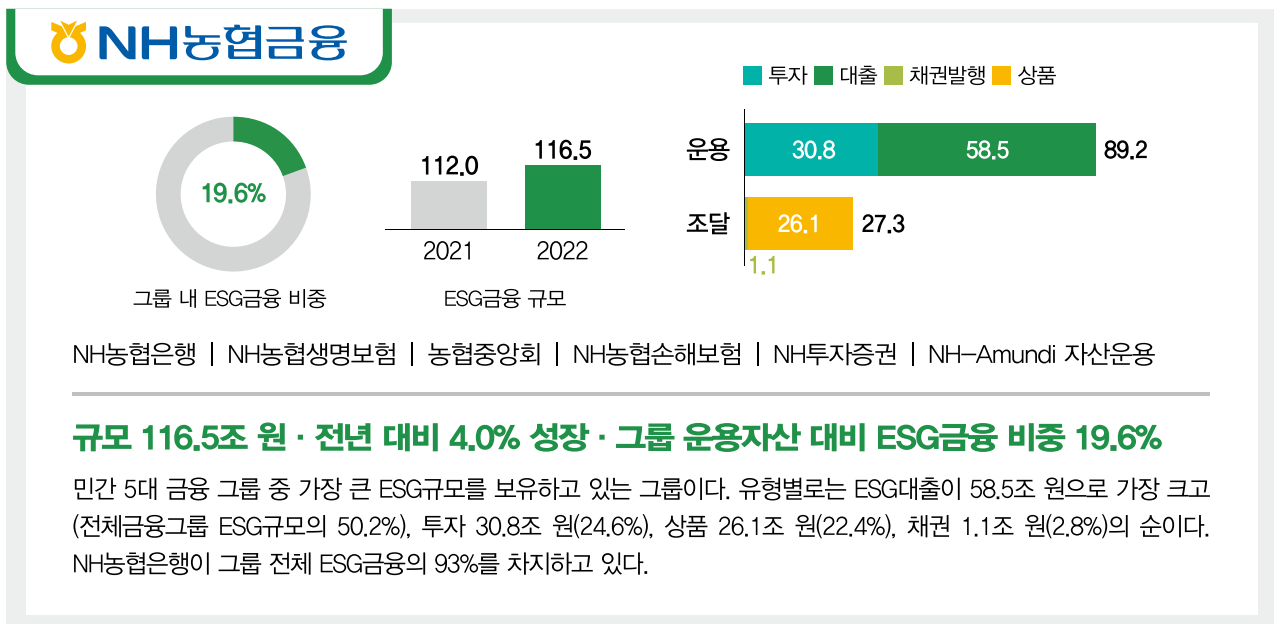
NH농협은행의 ESG금융규모는 7.5%의 성장률을 보이며 작년에 이어 2022년에도 민간섹터 금융기관 중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ESG대출뿐만 아니라 타 금융기관에 대비 대규모의 농·어촌 지원 관련 상품 판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간 5대 금융그룹의 ESG금융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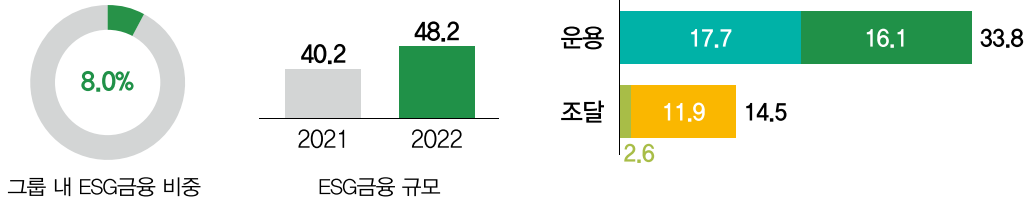
5개 금융그룹의 ESG금융 규모는 293.1조 원으로 6.0% 증가,
반면 총 ESG금융 규모 대비 비중은 26.7%로 하락(2021년: 35.2%).
5대 금융그룹의 ESG금융 80%이상 각 그룹의 은행이 보유.

그래프 3 5대 금융그룹 기관별 ESG금융 비중 및 유형별 규모

단위: 조 원



* KB 금융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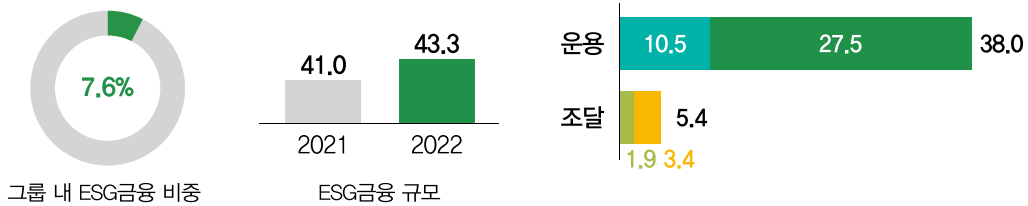


KB국민은행 | KB손해보험 | KB카드 | KB증권 | KB라이프생명보험 | KB캐피탈

규모 48.2조 원 · 전년 대비 20.1% 성장 · 그룹 운용자산 대비 ESG금융 비중 8.0%

KB금융그룹의 ESG투자는 전년 대비 8.0조 원(20.1%) 증가한 48.2조 원을 기록하며 민간금융그룹 중 가장 큰 성장을 보였다. KB국민은행의 비중이 85%에 이른다.

S 신한금융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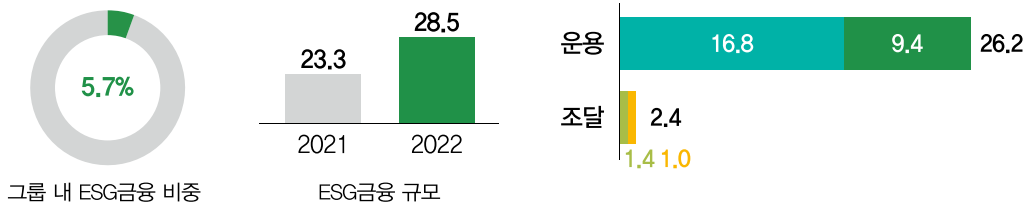


신한은행 | 신한금융투자 | 신한캐피탈 | 신한라이프 | 신한자산운용 | 신한카드

규모 43.3조 원 · 전년 대비 5.6% 성장 · 그룹 운용자산 대비 ESG금융 비중 7.6%

신한금융그룹 ESG금융 성장을 이끄는 것은 그룹 ESG금융 자산의 87%를 보유하고 있는 신한은행이다. 신한은행의 ESG금융 규모는 전년 대비 7.3% 증가하였는데 이는 ESG금융의 73% 차지하고 있는 대출 상품의 성장을 반영한 것이다.

하나금융그룹



하나은행 | 하나카드 | 하나증권 | 하나캐피탈

규모 28.5조 원 · 전년 대비 22.7% 성장 · 그룹 운용자산 ESG금융 대비 비중 5.7%

하나금융그룹 ESG금융 규모의 93%를 차지하고 있는 하나은행의 ESG금융 규모는 전년 대비 26.7% 성장하였다. 이 또한 대출 규모의 성장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ESG금융 유형별 세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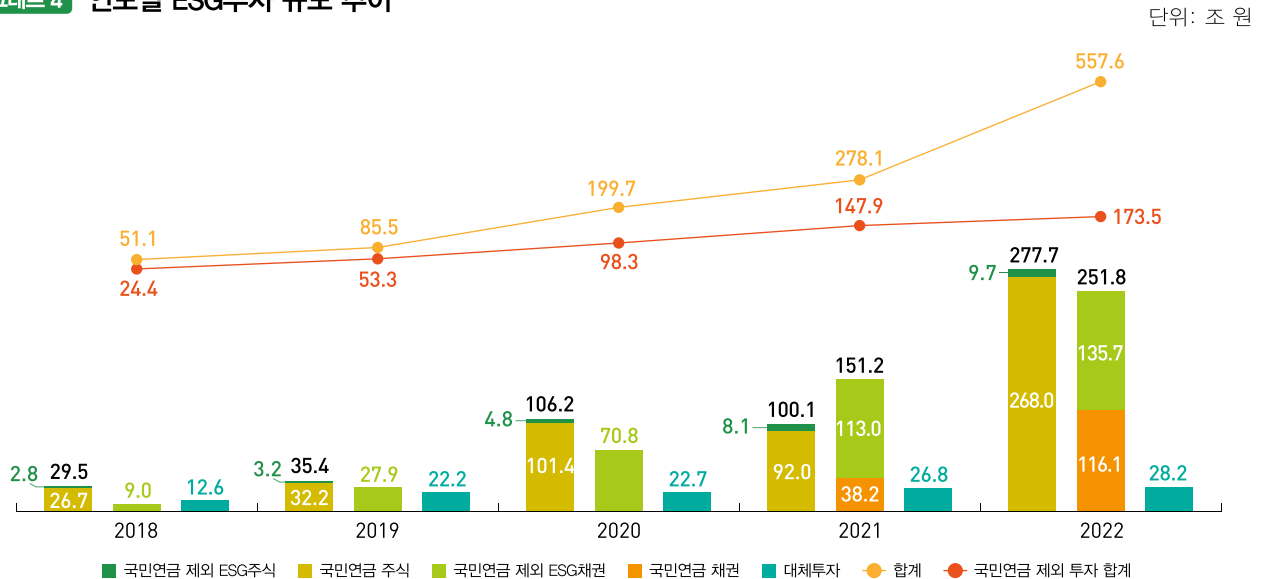
ESG투자	17
ESG대출	20
ESG채권 발행	24
ESG금융상품	28

ESG금융 유형별 세부 분석

ESG투자

2022년 말 ESG투자 규모는 총 557.6조 원으로, 전년 대비 100.5%(279.5조 원) 성장. 국내 ESG 금융 규모의 50.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국민연금의 ESG투자 규모 성장이 가장 큰 원인.

그래프 4 연도별 ESG투자 규모 추이



2022년 전체 ESG투자는 전년 대비 두 배 성장했다. ESG투자 규모가 이처럼 급증한 것은 국민연금의 ESG투자 규모가 3배 가까이 늘었기 때문이다. 국내와 해외 비중은 각 65.5%와 34.5%로 국내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해외 비중이 전년의 약 5%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국민연금이 2022년부터 해외 운용사 위탁자산 전액을 책임투자자로 분류하였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국내 ESG투자 규모 또한 173.5조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7.3%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ESG투자 규모의 78.2%를 차지하는 ESG채권 잔액이 전년 대비 20.1% 성장하며 ESG투자 규모의 증가세를 이끌고 있는데, 이는 글로벌 경기침체의 우려 속에서 비교적 안전한 채권 자산에 대한 투자 선호가 지속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채권에 이어 주식이 19.8%(2022년 말 잔액:9.7조 원), 대체투자가 5.1%(28.2조 원)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섹터 및 유형별 ESG투자

주식 277.7조 원(전년 대비 성장률: 177.5%), 채권 251.8조 원(66.5%), 대체투자 28.2조 원(5.1%)으로 모든 유형이 큰 성장률을 기록, 이는 국민연금의 ESG투자 규모 확대를 반영.

표 3 섹터별 ESG투자 규모¹

단위: 조 원

		ESG투자		주식		채권		대체투자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공적	공적은행	11.5	16.0	1.2	1.1	10.0	14.4	0.3	0.5
	연기금	132.0	386.6	92.9	269.3	39.0	117.2	0.1	0.1
	기타 공적금융	15.0	18.5	1.3	2.3	11.5	13.7	2.1	2.6
	합계	158.4	421.1	95.4	272.7	60.5	145.3	2.5	3.1
민간	은행	63.9	76.9	0.9	1.1	61.4	73.7	1.6	2.1
	생명보험사	26.9	28.7	0.2	0.2	14.9	16.7	11.7	11.8
	손해보험사	13.2	15.3	0.1	0.1	4.8	6.2	8.2	8.9
	자산운용사	4.5	4.2	2.3	2.4	1.6	1.2	0.6	0.5
	증권사	11.2	11.5	1.1	1.4	7.9	8.3	2.2	1.9
	합계	119.6	136.6	4.7	5.2	90.7	106.1	24.3	25.2

공적섹터

규모 421.1조 원 · 총 ESG투자의 75.5% · 전년 대비 성장률 165.8%

공적섹터의 ESG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165.8%의 큰 폭 성장을 기록하였다. 이는 공적섹터 ESG투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2022년부터 ESG투자 적용 자산군을 위탁자산 전체로 확대하면서 그 규모가 급성장하였기 때문이다.

유형별로는株式이 272.7조 원, 채권 145.3조 원, 대체투자 28.2조 원으로株式의 비중(64.5%)이 가장 높았다.

민간섹터

규모 136.6조 원 · 총 ESG투자의 24.5% · 전년 대비 성장률 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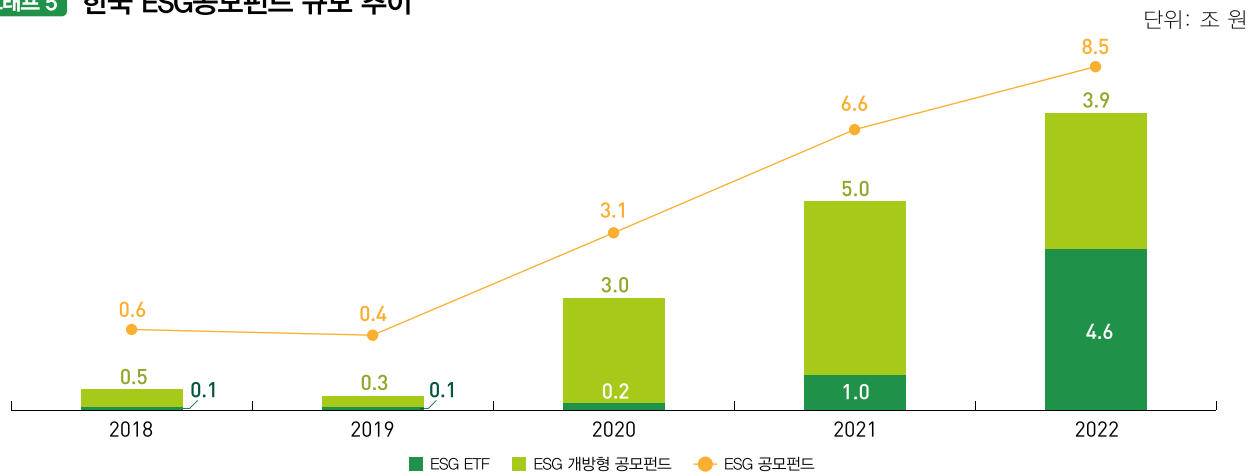
민간섹터 총 ESG투자 규모는 136.6조 원으로, 총 ESG투자의 24.5%이다. 공적섹터와는 달리 민간섹터의 ESG투자는 채권 비중(78%)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총 ESG채권투자 금액 69%가 은행권이 보유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지속되는 경기침체의 우려 속에 안전자산으로의 투자 선호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1. 중복계상을 피하기 위해 자산운용사의 수탁운용 금액은 제외

ESG공모펀드¹

국내 ESG공모펀드 시장은 8.5조 원이며 전체 공모펀드 대비 2.9%를 차지. 2022년에는 전체 공모펀드 시장이 5.9% 감소했으나 ESG공모펀드는 28.2%(1.9조) 성장.

그래프 5 한국 ESG공모펀드 규모 추이²



한국의 ESG펀드 시장은 글로벌의 0.2%를 차지하고 있다(공모펀드, ETF기준). 2022년 글로벌 ESG펀드 규모는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국내 시장은 2019~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2차 전지, 수소에너지 등 미래에너지 관련 ETF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까지는 개방형 펀드가 우세했으나 2022년에는 ETF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자산운용사 점유율 및 상위 펀드

표 4 자산운용사별 ESG공모펀드 시장점유율²

단위: %

자산 운용사명	미래에셋 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한국투자 신탁운용	마이다스에셋 자산운용	KB자산운용	NH-아문디 자산운용	멀티에셋 자산운용	슈로더투자 신탁운용	신한자산운용	키움투자 자산운용
2021	5.5	7.9	23.5	16.9	8.0	6.4	4.0	4.3	2.4	2.1
2022	26.5	20.4	10.8	9.3	10.8	5.0	2.2	2.5	2.9	2.2

ESG공모펀드 자산운용사별 점유율은 2021년 한국투자신탁운용과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이 각 23.5%, 16.9%로 가장 컸으나 2022년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이 각각 26.5%, 20.4%로 상위권에 올랐다. 이는 두 자산운용사가 국내 펀드 시장의 상승 흐름에 맞춰 다양한 2차 전지 관련 ETF 펀드를 발행하여 규모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ESG공모펀드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은 TIGER 2차전지테마(1.1조원), KODEX 2차전지산업(1조 원)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리튬, 수소 등 에너지 분야에 초점을 맞춘 펀드가 상위 10개 중 7개로 현재 한국 ESG펀드 시장은 환경(E)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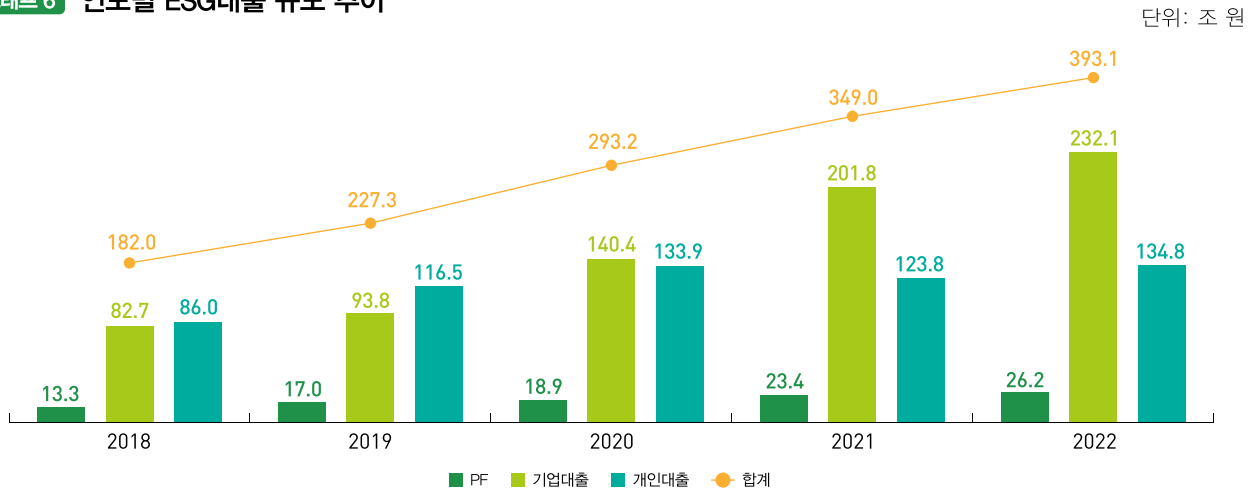
1. ESG공모펀드는 모닝스타코리아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해당 자료는 모닝스타 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2. 출처: 모닝스타 디렉

ESG대출

2022년 말 ESG대출 규모는 총 393.1조 원으로, 전년 대비 12.6% (44.1조 원) 성장.
국내 총 ESG금융 규모의 35.8%로 ESG투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

그래프 6 연도별 ESG대출 규모 추이



ESG대출은 지난 5년간 꾸준히 성장하여 2018년과 비교해 보면 그 규모는 2배 이상에 이르고 있다. 총 대출 자산 대비 ESG대출의 비율도 증가하여 2022년 14.3%로 나타났다. (2018년: 8.8%, 2019년: 10%, 2020년: 12%, 2021년: 13.4%)

섹터별 분석에서는 공적 부문 총 ESG대출의 55.5%(218.1조 원), 민간 부문 44.5%(174.9조 원)로, 공적 부문의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공적의 55.6%는 한국주택금융이 보유한 대출자산이다.

2022년 ESG대출 건수는 총 1,658건으로, 사회(S) 영역 815건(49.2%), 환경(E) 영역 699건(42.2%)으로 집계되었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사회(S) 영역이 74.6%, 환경(E)이 23.2%, ESG통합이 2.2%로, 사회 영역의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S) 관련 대출에는 예년과 유사하게 사회인프라시설 투자, 주택금융,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금융대출 등이 보고되고 있다. 환경(E) 관련 대출은 재생에너지, 저탄소, 혁신성장사업지원 등이 포함되는데, 이 중 재생에너지 관련 대출이 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민간금융의 경우 사회(S) 78.9%, 환경(E) 1.2%로 공적 부문의 각 71.8%, 25.5% 대비 사회 영역의 비중이 더 높았는데, 이는 민간은행, 특히 NH농협은행(농어촌 및 사회공헌 사업 지원 예/적금)과 우리은행(코로나19 금융지원)의 사회 영역 대출 규모를 반영한 영향이다.

환경 영역의 경우 작년 발표된 녹색채권가이드라인을 적용한 대출이 267건(38.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자체기준 173건(24.7%), 녹색채권원칙(GBP, Green Bond Principles) 112건(16.0%)이다. 하지만 사회 영역은 국내 분류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제자본시장협회(ICMA)의 사회적채권원칙(SBP)과 UN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적용이 74%로 가장 높았고, 자체기준 적용이 17.8%로 두 번째로 높았다. ESG대출 금액 면에서 사회영역의 비중이 환경의 2배가 넘는 만큼 한국형 사회분류체계(Social Taxonomy)의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표 5 ESG대출 유형

ESG대출은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와 관련된 시설투자 목적의 대출뿐만 아니라 대출 심사에 ESG 요소를 반영 또는 ESG관련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대출을 포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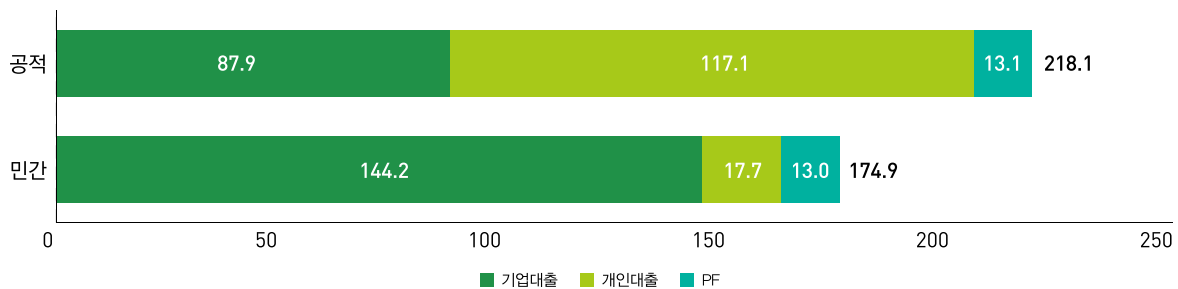
유형	사례
PF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 주택 공급 / 철도, 고속도로, 상하수도 등 사회 인프라 구축
기업대출	녹색 업종 영위기업 대출 /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 코로나19 금융지원 / 일자리 창출 기업
개인대출	친환경 차량 구매 / 그린 리모델링 / 주택신용보증 / 주택담보연금보증

유형별 ESG대출

ESG대출은 대상에 따라 기업대출, 개인대출,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구분, 이 중 가장 비중이 가장 큰 유형은 기업대출(59.1%)이고 다음으로 개인대출(34.3%), PF(6.7%)의 순서.

그래프 7 ESG대출 유형별 규모

단위: 조 원



기업대출

규모 232.1조 원 · 전체 ESG대출 대비 비중 59.1% · 전년 대비 성장률 15.0%

2022년 말 기준 잔액이 232.1조 원으로 ESG대출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 144.2조 원(62.1%)은 민간금융 부문에서, 나머지 87.9조 원(37.9%)은 공적금융 부문에서 제공되었다.

기업들의 자금 수요 조달이 채권시장보다는 은행권 대출로 몰리면서 기업대출의 규모는 전년 대비 15.0%(30.3조 원) 성장하였다.

영역별 구분에서는, 수출성장자금, 기술금융 및 중소기업 지원 등과 관련된 사회(S) 영역이 64%,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등과 관련된 환경(E) 영역이 35%로 조사되었다.

개인대출

규모 134.8조 원 · 전체 ESG대출 대비 비중 34.3% · 전년 대비 성장률 8.9%

2021년 8.0조 원 감소하였던 개인대출 규모가 2022년 8.9% 성장하였다. 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 관련 대출이 전년 대비 8.1%(8.7조 원)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개인대출 규모는 115.4조 원으로 전체 ESG개인대출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14%는 민간은행에서 제공하는 청년지원금융, 서민정책금융, 저소득자 지원 금융 등이다.

PF

규모 26.2조 원 · 전체 ESG대출 대비 비중 6.7% · 전년 대비 성장률 12.0%

PF에는 재생에너지, 친환경 교통수단 및 건물, 하·폐수 관리 등과 관련된 환경(E) 영역 대출이 9.5조 원(36%), 사회 인프라 구축,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등과 관련된 사회(S) 영역이 10.5조 원(40%), 기타 ESG통합 영역 6.2조 원(24%)으로 구성된다. PF의 13.1조 원(50.4%)은 공공금융기관에서 나머지는 민간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다.

섹터별 ESG대출

공적금융 218.1조 원(55.5%), 민간금융 174.9조 원(44.5%)으로 두 분야 모두 각 15.6%, 9.2%의 성장률 기록.

표 6 섹터별 ESG대출 유형 규모

단위: 조 원

		ESG대출		PF		기업대출		개인대출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2021	2022
공적	공적은행	66.7	88.1	9.2	10.5	56.0	76.0	1.5	1.6
	연기금	3.5	2.5	1.3	0.0	2.2	2.5	0.0	0.0
	기타 공적금융	118.6	127.5	2.4	2.7	9.4	9.4	106.8	115.4
	합계	188.8	218.1	12.9	13.1	67.6	87.9	108.2	117.0
민간	은행	143.8	156.0	2.5	3.2	125.8	135.1	15.5	17.7
	생명보험사	11.4	12.6	6.7	8.2	4.7	4.3	0.0	0.0
	손해보험사	3.0	4.6	0.8	1.1	2.2	3.5	0.0	0.0
	자산운용사	0.0	0.0	0.0	0.0	0.0	0.0	0.0	0.0
	증권사	2.0	1.7	0.5	0.5	1.4	1.2	0.0	0.0
	합계	160.2	174.9	10.5	13.0	134.2	144.2	15.5	17.7

공적섹터

규모 218.1조 원 · 전체 ESG대출 대비 55.5% · 전년 대비 성장률 15.6%

공적금융의 ESG대출은 개인대출 117.1조 원(공적섹터 ESG대출의 53.7%, 증가액: 8.8조 원), 기업대출 87.9조 원(40.3%, 20.3조 원), PF 13.1조 원(6.0%, 0.2조 원)으로 개인대출의 규모가 가장 크다.

공적섹터 대출에서 개인대출 비중이 가장 큰 것은 공적섹터 대출의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자 산이 대부분 개인대출이기 때문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ESG대출 규모는 121.1조 원(증가액: 9.3조 원)으로, 공적금융 ESG대출의 55.6%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 95%(115.4조 원)는 주택금융 관련 개인대출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다음으로 ESG대출 규모가 큰 기관은 KDB산업은행(52.4조 원, 증가액: 10.4조 원)으로 공적금융 대출 총액의 23.9%를 차지한다. KDB산업은행의 ESG대출은 80.7%가 기업대출, 19.3%는 PF대출로 구성되고 개인대출은 없다. 2022년 KDB산업은행의 ESG대출 규모가 10조 원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 또한 채권시장의 축소로 기업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직접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수출입은행(19.4조 원), 중소기업은행(16.4조 원)이 그 뒤를 따르고 있는데, 각 총 공적섹터 ESG대출의 8.9%, 7.5%에 해당한다. 두 기관의 대출 규모 또한 작년 대비 각 6.5조 원, 4.5조 원 증가하면서 공적금융의 성장을 도왔다.

공적금융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사회(S) 71.8%, 환경(E) 25.5%, ESG종합 2.7%로, 사회(S) 영역은 개인대출이 대부분이며 (72%), 환경(E)은 99%가 기업대출이다.

민간섹터

규모 174.9조 원 · 전체 ESG대출 대비 44.5% · 전년 대비 성장률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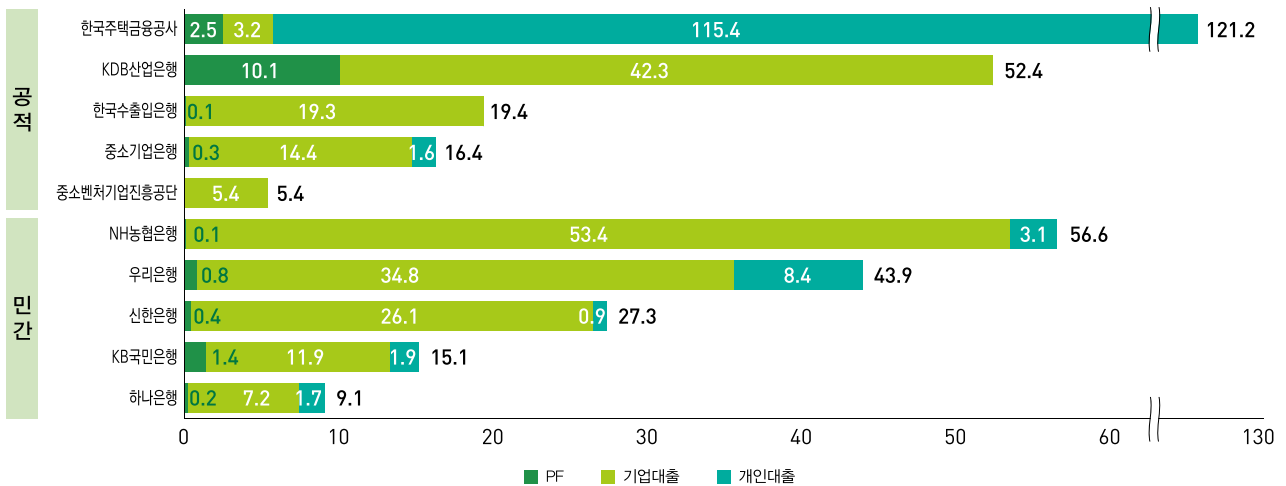
공적섹터와는 달리, 민간섹터에서의 ESG대출은 기업대출 82.4%(144.2조 원), 개인대출 10.1%(17.7조 원), PF 7.4%(13.0조 원)로, 기업대출이 가장 크다.

기관별로 보면 은행권이 156.0조 원으로, 전체의 89.2%에 해당하고, 생명보험 7.2%(12.6조 원), 손해보험 2.6%(4.6조 원), 증권사 1.0%(1.7조 원) 순이다.

가장 큰 비중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권의 경우 기업대출이 135.1조 원(전년 대비 7.4% 성장)으로 은행권 ESG대출 중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86.6%)을 차지하고 있다. 민간금융에서는 사회(S) 관련 대출이 78.2%로 가장 높았으며, 환경(E) 20.3%, ESG통합 1.5% 순이다. 사회, 환경 영역 모두 기업대출이 전체 영역별 대출의 52.0%, 73.5%로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래프 8 주요 금융기관 ESG대출 유형별 규모

단위: 조 원



ESG채권 발행

ESG채권 유형과 원칙

표 7 ESG채권 유형

채권 유형	세부 내용	채권 원칙
녹색채권	기후변화 및 환경 개선 목적	녹색채권원칙(GBP), 기후채권표준(CBS),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K-GBG), JP GBG, EU GBS
사회적채권	일자리, 인프라, 사회 가치 창출 목적	사회적채권원칙(SBP), JP SBG, EU SURE
지속가능채권	환경 및 사회적 목적	지속가능채권 가이드라인(SBG)
지속가능연계채권	환경사회지배구조 목표치와 연동하여 이자율 산정	지속가능연계채권원칙(SLBP)

ESG채권은 조달 자금의 사용 목적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지속가능연계채권은 2022년 말 기준 발행 0건으로 사실상 3종류의 채권만 거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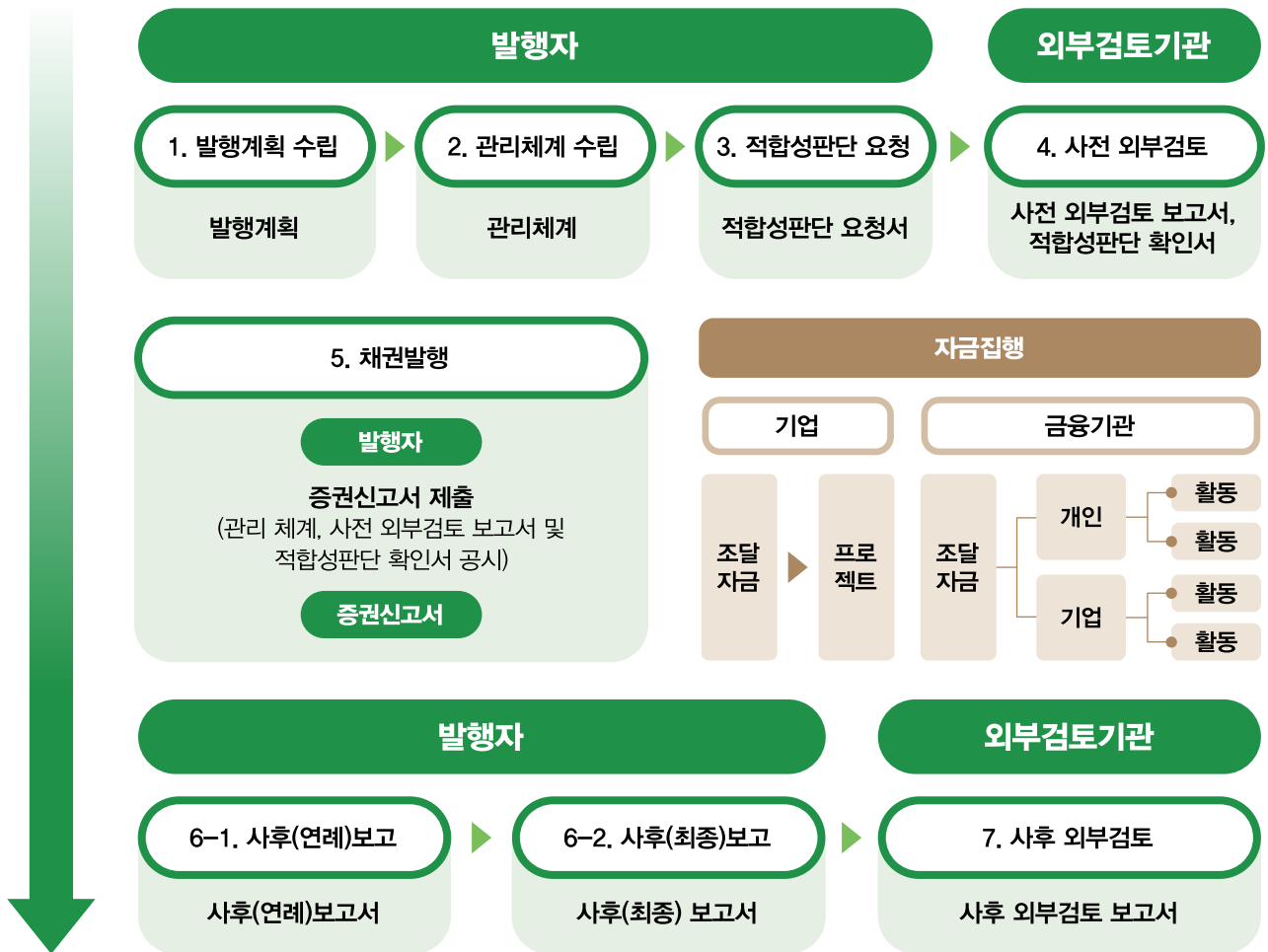
ESG채권은 유형에 따라 채권 원칙을 선정하여 발행하게 된다. 발행계획 수립 및 사전·사후 외부검토, 사후보고와 같이 기본 절차는 모든 원칙이 유사하다.

2022년 12월 개정된 한국형 녹색채권가이드라인^{K-GBG}을 예시로 아래에 소개한다. K-GBG의 경우 사용처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적합한 녹색경제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사후 외부검토가 의무라는 점이 특징이다. 현재 EU GBS와 K-GBG만이 사후 외부검토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형 녹색채권가이드라인 채택 비율은 2022년 기준 6.6%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은 사후 외부검토가 의무라는 점에서 투명한 ESG채권 시장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추후 채택 비율이 높아지길 기대한다.

사회적채권가이드라인은 2021년 기획재정부에서 제정에 착수하였다고 발표한 후 2022년 정부에서 발표한 'ESG인프라 고도화 방안'에서 2023년에 마련한다고 밝혔다.

그림 1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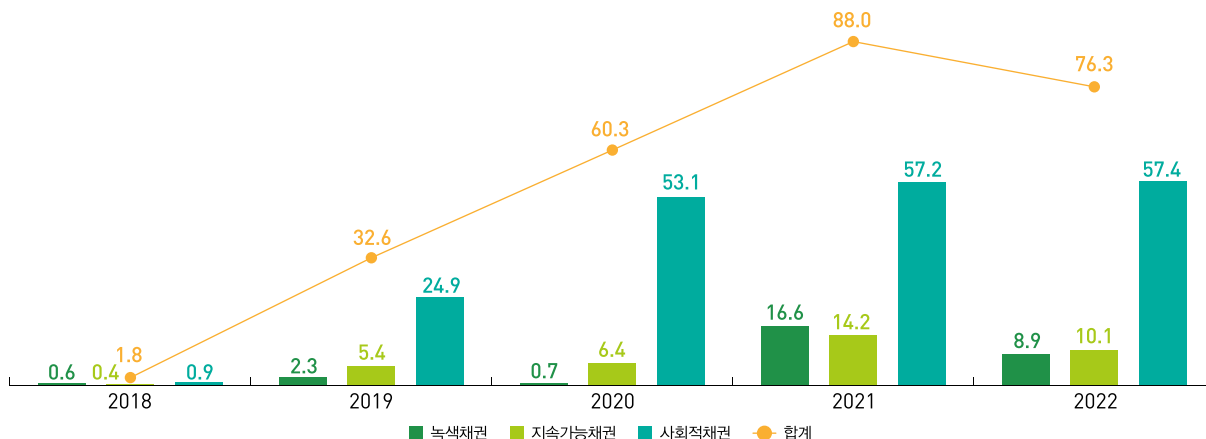


출처: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2022. 12. 개정)

ESG채권 발행 규모

그래프 9 연도별 ESG채권 발행 유형별 규모 추이 (금융+비금융)

단위: 조 원



ESG채권 발행 규모는 4년간 증가세를 유지하다 2022년 감소했다. 각 유형별 감소 비율은 녹색채권 -46%, 지속가능채권 -29%, 사회적채권 -0.3%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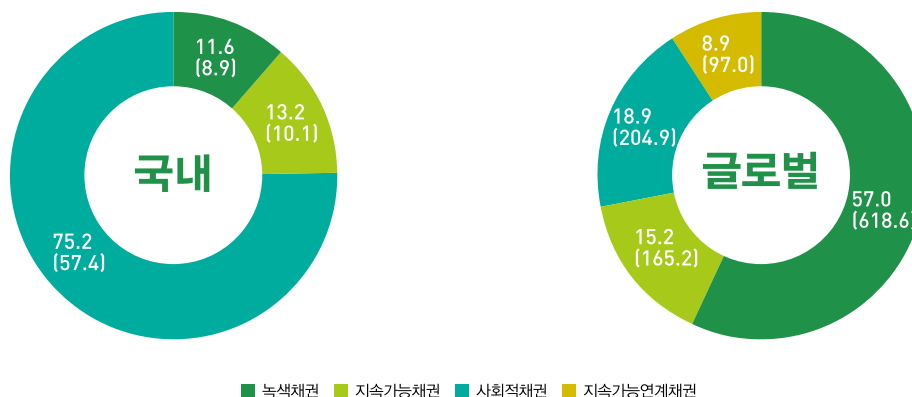
녹색채권의 경우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에너지 공급 불확실성과 수요 증가로 상대적으로 공급이 어려운 재생에너지 관련 채권 발행이 둔화된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설문지 보고에 의하면 녹색채권의 재생에너지채는 2021년 34건, 3.8조에서 2022년 18건, 1.2조로 감소했으며, 지속가능채권 또한 재생에너지채가 2021년 21건, 1.4조에서 2022년 8건, 0.5조로 줄었다.

사회적채권의 경우 발행액에 큰 변동이 없었다. 사회적채권의 경우 주요 공적 금융/비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비율이 92%로, 외부 환경보다는 정책의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내 및 글로벌 ESG채권 규모

그래프 10 국내 vs 글로벌 ESG채권 유형별 비중¹

단위: %(조 원)



1. Climate Bond Initiatives (2023), Sustainable Debt Global State of the Mar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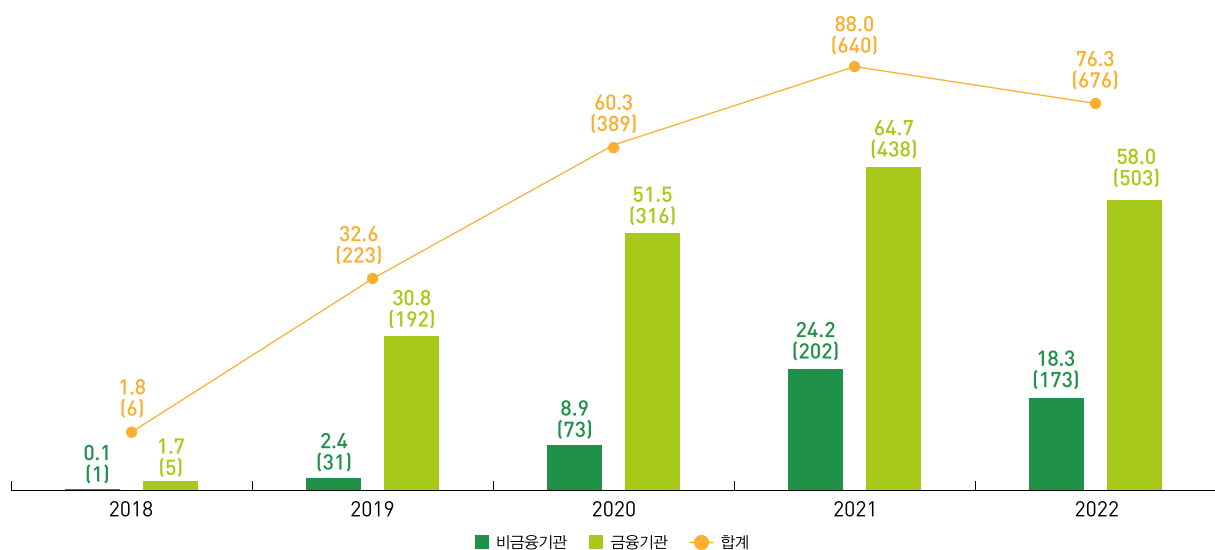
글로벌 ESG채권은 국내와 달리 녹색채권의 비율이 절반을 상회한다. 국내의 경우 재생에너지 및 전환 관련 투자 기회가 비교적 적고, 공적금융기관에서 발행하는 사회적채권 금액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차이가 있다.

2022년 녹색채권을 가장 많이 발행한 지역은 유럽이었으며, 대부분 녹색전환 및 전환 기술 연구 지원과 에너지, 기후 변화 적응 관련 채권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ESG채권 또한 모든 유형이 작년에 비해 감소했다. 녹색채권은 국내와 마찬가지로 국제 정세로 인한 에너지 공급 불안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사회적채권은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는데, 엔데믹으로 인한 코로나19 자금지원의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그래프 11 연도별 ESG채권 발행 규모 및 건수 추이 (금융/비금융)

단위: 조 원(건 수)



섹터별 ESG채권 발행

ESG채권 발행은 금융기관과 비금융기관에서 모두 감소했다. 금융기관은 10%, 비금융기관은 24% 감소로, 기업이 포함되어있는 비금융기관의 감소율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적/민간으로 살펴보면 금융기관은 두 부문 다 채권 발행액이 감소했다. 공적의 경우 2.4조 감소했는데, 이는 KDB산업은행의 재생에너지 관련 채권 발행액이 지난해 대비 1.4조 가량 줄어든 것이 주요 감소 원인이다.

민간 금융기관은 총 4.39조가 감소했으며 녹색채권이 2.34조로 감소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민간은행은 2021년과 달리 2022년 한 곳만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이는 은행에서 금리가 높은 채권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유동적인 예/적금으로 자금을 조달한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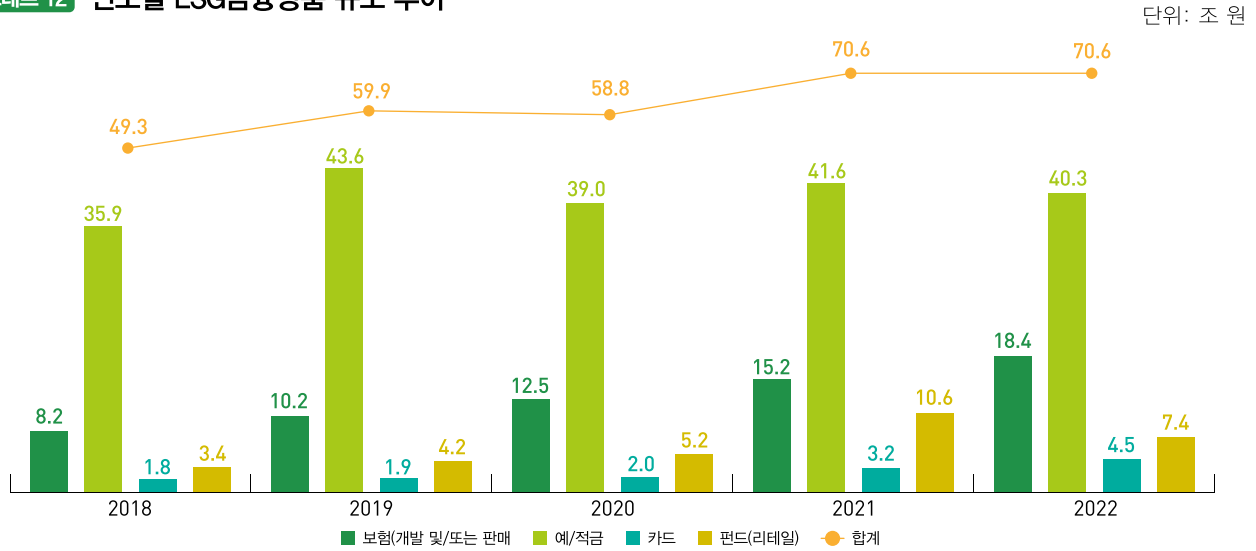
비금융기관의 공적 부문은 0.1조 감소로 가장 적은 감소 규모를 보였다. 녹색채권, 지속가능채권은 각 0.4조, 0.1조 감소했으나, 사회적채권이 0.9조 증가한 것이 원인이다. 해당 부문의 사회적채권 발행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예금보험공사에서 각 0.6조, 0.5조로 증가세를 견인했다.

민간기관은 녹색채권, 지속가능채권, 사회적채권 모두 작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했다. 특히나 녹색채권은 2021년 6.5조로 발행액이 급격하게 증가했으나 2022년 3조로 감소했으며 기존 녹색채권을 발행했던 대부분의 기업이 2022년에는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SG금융상품

총 규모 70.6조로 전년과 같은 규모 유지. 예/적금 40.3조(57.2%), 보험 18.4조(26%), 펀드 7.4조(10.5%), 카드 4.5조(6.3%)로 예/적금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남.

그래프 12 연도별 ESG금융상품 규모 추이



ESG금융상품은 여러 가지 기여 형태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상품 가입자의 ESG관련 활동과 연계하여 우대금리 제공, 보험료 감면, 마일리지 적립을 해주는 등 가입자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ESG 활동을 장려하는 것이다. 그 외에 해당 상품 수익을 직접 기부하는 상품도 이에 해당한다.

2022년 ESG금융상품은 전년도 대비 보험, 카드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예/적금과 펀드 판매액이 감소하면서 전체 규모는 변함이 없었다. 예/적금은 공적은행, 민간은행에서, ESG펀드는 증권사와 민간은행에서 주로 감소했다.

유형별 ESG금융상품

표 8 ESG예/적금 순위 및 주요 상품

단위: 조 원

기관명	규모	주요 상품
NH농협은행	24.2	NH더하고나눔정기예금, 법사랑플러스
KB국민은행	5.3	KB청년희망적금, KB장병내일준비적금
우정사업본부	2.5	초록별사랑정기예금, 이웃사랑정기예금

ESG예/적금은 ESG목적에 해당하는 상품 혹은 가입자의 활동에 따라 우대이율을 제공하는 상품이며, 규모는 해당 상품의 예수금 총잔액을 의미한다.

예/적금은 민간금융이 90%, 그중 NH농협은행이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농업, 농촌 및 사회공헌 사업 지원 상품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전년 대비 전체 예/적금 규모는 1.3조 감소했는데, 그중 0.8조가 NH농협은행의 감소액이다.

예/적금의 86%가 사회(S) 관련 금액으로 나타났으며 NH농협은행의 예/적금 대부분이 사회(S)에 집중되어 있다.

표 9 ESG보험 순위 및 주요 상품

단위: 조 원

기관명	규모	주요 상품
삼성화재해상보험	3.7	ECO 마일리지 자동차보험,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DB손해보험	2.7	에버그린 특약, 취약계층 건강보험
신용보증기금	2.5	뉴딜사업 영위기업 매출채권보험

ESG보험에는 주로 가입자의 활동에 따른 특약을 걸거나, 가입이 어려운 대상에 보험을 제공하는 상품이 해당한다. 규모는 총 판매액(원수보험료)을 의미한다.

보험상품의 경우 민간금융이 80%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삼성화재해상보험이 3.7조 원으로 그중 20%를 차지하고 있다. 영역별로는 환경(E) 관련 상품 규모가 84%로 우세하며, 주로 주행거리 및 온라인 계약자료 수령 특약 상품이 이에 해당한다.

표 10 ESG펀드 순위 및 주요 상품

단위: 조 원

기관명	규모	주요 상품
미래에셋증권	2.4	ETF(전기차/2차전지), ETF(친환경)
KB국민은행	1.3	한국투자글로벌전기차&배터리증권투자신탁, 마이다스책임투자증권투자신탁
KB증권	0.4	KB스타ESG우량중단기채증권투자신탁, 트러스톤ESG레벨업증권투자신탁

ESG펀드는 투자 대상의 ESG요소를 고려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공모/사모 펀드 상품을 지칭하며, 규모는 총 판매액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ESG펀드는 증권사와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증권사가 75%, 은행이 24%를 차지하고 있다. ESG펀드 또한 2차전지, 배터리 등과 같은 에너지 관련 상품에 집중되어 환경(E) 관련 금액이 65%로 가장 컸으며, ESG통합 관련 금액이 25.6%로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이는 다른 상품에 비해 펀드의 경우 통합 전략 적용 상품이 상대적으로 우세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표 11 ESG카드 순위 및 주요 상품

단위: 조 원

기관명	규모	주요 상품
부산은행	1.6	그린카드, 동백전
우정사업본부	1.2	행복한 체크카드, 우리동네PLUS 체크카드
NH농협은행	0.4	농촌사랑체크카드, 그린카드

ESG카드는 주로 카드 사용자의 활동에 따라 할인 혜택 혹은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상품이 해당하며, 규모는 총 사용액을 의미한다.

ESG카드는 전년 대비 39% 성장했으며, 민간 은행이 1.3조로 가장 성장 규모가 크다. 2022년 총 규모에서 민간은행이 2.6조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ESG영역별로는 카드 또한 환경(E) 관련 금액이 가장 크다. ESG카드는 환경부와 제휴하여 출시한 카드 상품이 2.2조로 상당 비율이 집중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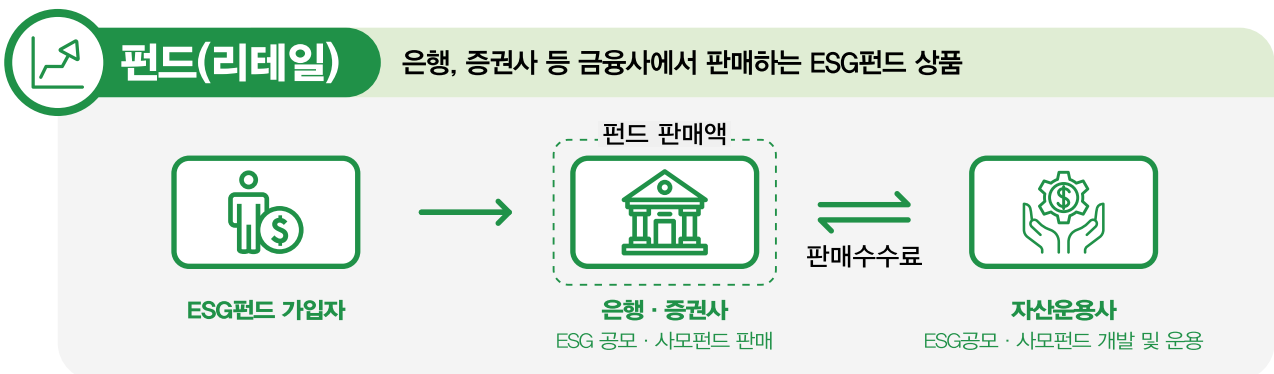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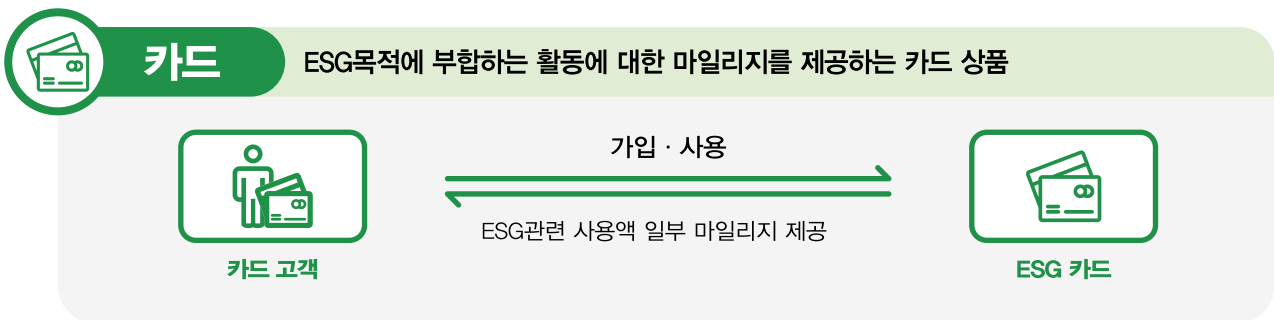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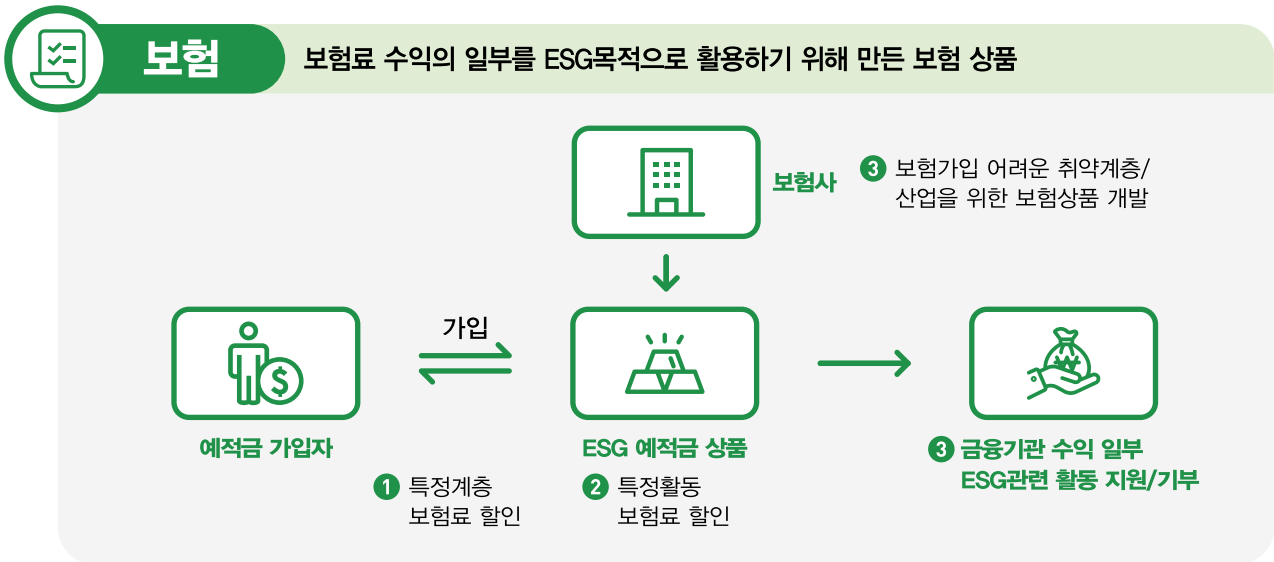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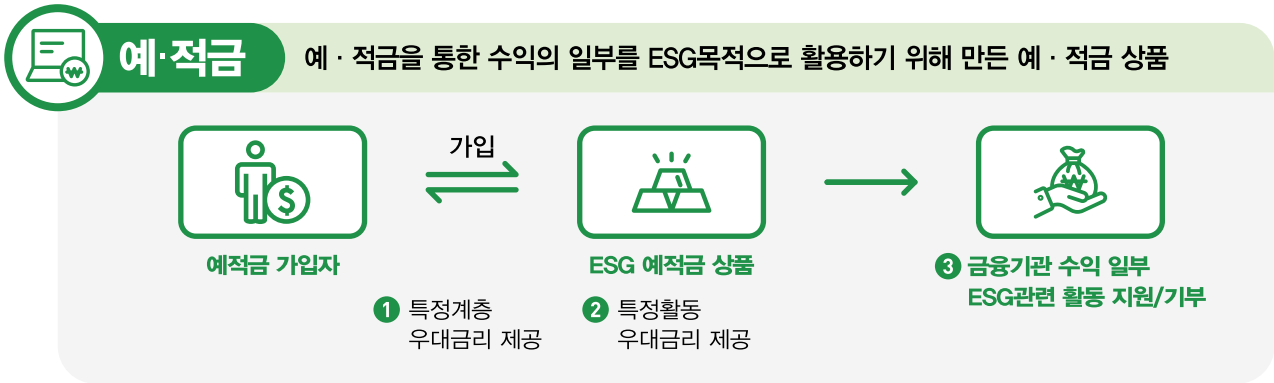
ESG금융상품과 분류체계

보고된 총 1,118건의 ESG금융상품 중 적용한 분류체계 혹은 자체기준이 없다고 응답한 건수는 450건으로 전체의 40.3%에 달한다. 분류 체계를 선택한 경우에도 지속가능개발목표(SDGs)가 25.9%, 자체기준이 14.3%로 ESG금융에 특화된 기준보다는 보편적인 기준을 선택하는 양상이다.

ESG펀드는 ESG금융상품 유형 중 가장 많은 740건이 보고되었으며, 전체 상품과 마찬가지로 적용하고 있는 기준이 없는 건수가 331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보고된 ESG펀드의 약 45%는 정해진 기준 없이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는 것이다.

ESG금융상품은 일반 금융상품 소비자와 투자자에게 ESG에 대한 관심을 불러오고 ESG금융에 금액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는 일관된 기준이 없어 금융상품 소비자와 투자자에게 충분한 신뢰를 주지 못할 수 있다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건전한 ESG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관련 기준과 감독 체계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그림 2 ESG금융상품 유형별 세부설명



ESG금융 이슈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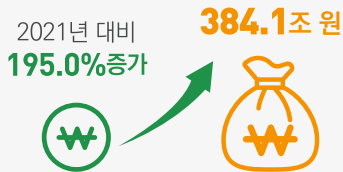
국민연금의 ESG투자	32
분류체계와 지속가능공시	34
ESG금융 목표 현황	38

ESG금융 이슈 보고

국민연금의 ESG투자

2022년 말 국민연금의 ESG투자는 195% 급증, 이는 위탁운용자산 전체를 책임투자로 간주한 결과로 ESG워싱 우려.

ESG투자 규모



국민연금의 2022년 말 기준 ESG투자 규모는 384.1조 원(직접운용 99.7조 원, 위탁운용 284.4조 원)으로 2021년의 130.2조 원 대비 급격히 성장하였다. 자산별로는 주식 268.0조 원, 채권 116.1조 원(2021년 각 92.0조 원, 38.2조 원)으로 두 자산 모두 크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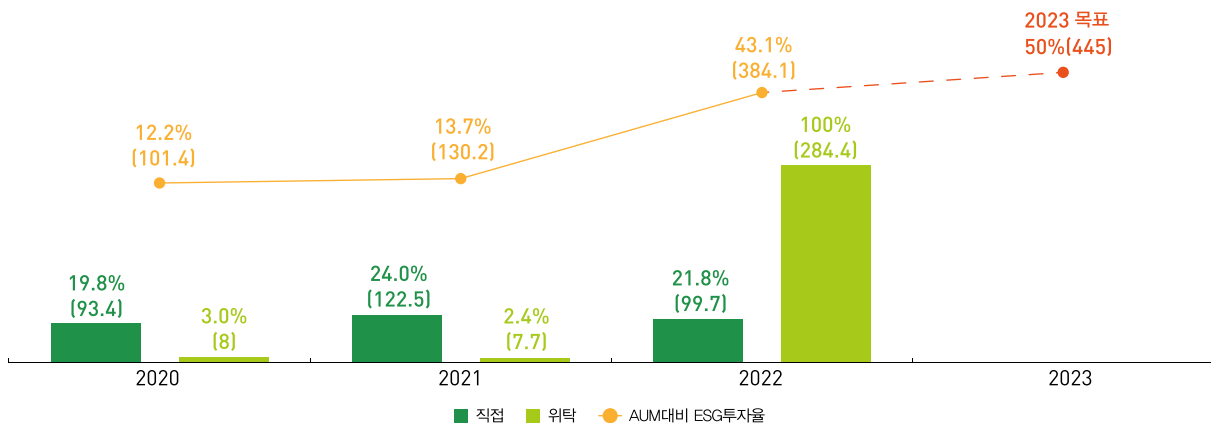
ESG투자 규모의 성장으로 2022년 국민연금의 총 운용자산(AUM) 대비 ESG자산 비중 또한 43.1%(AUM: 890.5조 원)로, 2021년의 13.7%(AUM: 948.7조 원) 대비 큰 폭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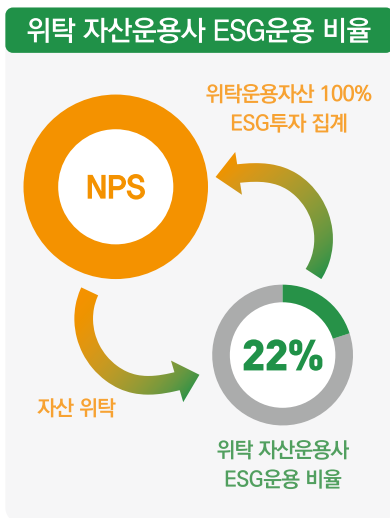
이처럼 책임투자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2022년부터 위탁운용사에 위탁한 국내·외 주식 및 채권 자산 전체(위탁자산 중 대체투자 146.6조 원 제외한 284.4조 원)를 'ESG투자'로 집계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총 책임투자 규모의 7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민연금의 위탁운용 책임투자 자산은 2021년말까지는 국내주식의 위탁유형 중 책임투자형에만 적용해 왔고, 그 규모는 7.7조 원이었다. 2022년 ESG투자 집계 총 자산 중 책임투자형으로 위탁된 자산은 6조 원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은 2019년 의결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후속 조치' 중 '위탁운용사 선정, 평가 시 가점부여방안'에 따라 2020년부터 국내 주식 위탁운용사 선정 시 책임투자 정책 또는 지침을 마련한 위탁운용사에 가산점을 부여하였고, 2022년에는 이를 해외주식과 국내 외 채권 운용사 선정 시에도 확대하면서 거의 모든 운용사들이 책임투자 및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게 되었다. 국민연금은 위탁운용사가 책임투자 및 스튜어드십코드를 마련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탁운용자산 전체를 책임투자로 집계한 것이다. 반면 직접 운용의 경우, 책임투자 자산은 2022년 99.7조 원으로 전년 대비 오히려 줄어들었다.(2021년 122.5조 원)

그래프 13 국민연금 직접·위탁 운용 자산 중 ESG투자 비율

단위: %(조 원)





국민연금에 의하면 운용사로부터 책임투자 정책 및 조직, 책임투자 절차 등을 포함한 책임투자보고서 또는 ESG, Sustainable 또는 ESG Integration 리포트(해외 운용사의 경우)를 수령,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책임투자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정책과 시스템 등 조직에 대한 평가 방법에 불과하고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위탁자산 운용이 실질적으로 ESG를 고려하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위탁자산운용 자체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없이 해당 자산 전체를 책임투자자로 분류하는 것은 ESG투자금액이 과도하게 부족하여 ESG위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본 설문지 응답기관 중에는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19개 기관이 포함되어 있다.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및 스튜어디십코드를 마련하고 있는 운용사에 위탁한 자산은 모두 책임투자자로 간주한다'는 논리대로 라면 이 19개의 위탁운용사 운용자산은 모두 ESG투자 자산이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응답에 의하면 해당 기관들의 운용자산 중 ESG투자 자산 비율은 평균하여 단 22%이다. 이는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자산 분류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구심을 뒷받침한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무리하게 ESG자산을 잡은 것은 과거 제시한 계획에 맞추기 위한 보여주기식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022년 7월 국민연금은 "ESG투자 대상 자산 군이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전체 운용자산의 50% 넘는 자산물이 ESG투자에 적용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본 보고서 설문지 중 'ESG금융에 대한 기준'항목에서도 국민연금은 '책임투자 적용 자산군을 2020년 국내주식 직접운용 및 위탁운용, 2021년 국내채권 직접운용(회사채 등), 2022년 국내·해외 주식 및 채권 위탁운용, 2023년 해외주식 및 해외채권 직접운용(방안 마련 중)으로 확대하겠다'고 답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내 금융기관 총 AUM의 13.7%, 총 ESG투자 규모의 35.0% 차지하며 국내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기관이다. 국민연금은 '책임투자란 ESG요소를 고려하는 ESG투자와 주주권행사를 통해 이행'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린워싱의 위험을 방지하고 형식적이지 않은 책임투자를 위해 글로벌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의 실질적이고 명확한 ESG투자 및 평가 기준 설립이 필요해 보인다. ESG운용사 선정에 대한 강화된 절차와 선정 이후 책임투자지침 시행에 대한 적극적 관리, 개별 위탁자산의 ESG통합 평가 등이 마련되어야 하고, 기업의 ESG정보공개 요구 등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를 통해 면밀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분류체계와 지속가능공시

2023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개정안 시행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안이 확정되어 올해 초 시행. 171개 금융기관 중 72개 기관이 적용 계획 밝힘.

2022년 12월 환경부가 확정,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안이 2023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i) 원자력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 실증은 '녹색 부문'에, (ii) 원자력 발전(신규 건설 및 계속 운전)과 액화천연가스(LNG)는 '전환 부문'에 포함한다는 것이다.¹ 2021년 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발표 당시 천연가스는 탈석탄 과정에서 전환 에너지의 필요성으로 인해 '전환 부문'에 한시적으로 포함되었고, 원자력은 향후 국제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었다.

녹색경제와 녹색에너지 부문을 정의하는 녹색분류체계는 i) 그린워싱(Green Washing)으로 대변되는 과잉, 과대, 허위 정보 등 불합리한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의 필요성, ii)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 iii) 더 많은 녹색자금의 투자를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린워싱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시장 성장 저하, 소비자 신뢰 저하, 시장 질서 교란, ESG추진 투자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2022년 기준 EU를 중심으로 20여 개국 이상이 녹색분류체계 도입을 진행 중인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EU의 분류체계를 활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우리나라 녹색분류체계 또한 EU Taxonomy를 기본으로 하되 국가의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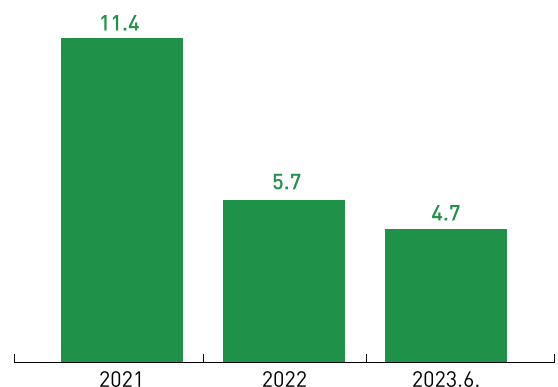
본 보고서 설문지에 응답한 총 171개 기관 중 2022년 말 기준 72개 기관(공적 13개, 민간 59개)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적용하거나 적용계획이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전년도 66개 기관 대비 소폭 증가한 수치이다. 녹색분류체계 적용 자산군은 투자 대출 상품 채권발행 순으로 많이 선택했다

국내 3대 연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은 모두 금번 조사에서도 K-Taxonomy를 적용하거나 적용계획이 없으며 신용평가사의 ESG등급을 사용하거나 자체 ESG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적용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또한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 기준 등을 제시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와 ESG통합전략을 적용하는 ESG투자는 서로 무관하다. 녹색채권 발행 체계 정립 등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국민연금 ESG통합전략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답하였다.

2022년 녹색채권 시장은 침체 분위기를 보였다. 한국거래소 공시에 따르면 2022년 녹색채권 발행 건수는 모두 74건으로 2021년 104건에서 30%가량 줄어들었고, 발행액도 5조 8천억 원(2021년 약 11조 4억 원)으로 전년 대비 절반 가량 급감하였다. 이는 전반적인 경기침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채권발행 비용 증가, 재생에너지 투자 감소가 원인으로 보인다. 하지만 2023년 들어 녹색채권 시장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3년 6월 기준 녹색채권 발생 건수 44건, 총 발행액은 4조 7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그래프 14 연도별 녹색채권 발행 추이

단위: 조 원



1. K-택소노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녹색경제활동을 '녹색부문'과 '전환부문' 2가지로 나누고 있다. 녹색부문은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과 같이 진정한 녹색경제활동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포함하고, 전환부문은 탄소중립이라는 최종지향점으로 가기 위한 중간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경제활동으로 한시적(2030년~2035년)으로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되었다.

녹색분류체계 뿐만 아니라 사회분류체계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22년 2월 EU에서는 소셜택소노미(Social Taxonomy) 최종안을 발표하였다. 국내에서도 2021년 기획재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과 손잡고 사회적채권가이드라인 제정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나 진행 상황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ESG금융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분야는 사회(S) 관련 금융활동으로 ESG금융유형(대출, 금융상품, 채권발행)의 74%(금액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 관련 활동에 대한 정확한 국내의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각 기관은 글로벌 기준을 적용하거나 자체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ESG워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총 171개 기관 중 77개(공적 15개, 민간 62개) 기관이 사회적채권가이드라인이 개발되면 이를 적용할 계획이고, 10개 이상의 기관은 가이드라인 내용이 발표된 이후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금융기관들이 소셜워싱이라는 의심을 받지 않고 더욱 적극적으로 적격 프로젝트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한국형 소셜택소노미'는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금융공시

글로벌시장에서 금융공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공시는 금융기관의 자금이 ESG목적에 맞는 활동에 제대로 투자되었는지를 공개하기 위한 것이다. EU에서는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정¹⁾(SFDR,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의 일환으로 2021년 3월부터 펀드 상품에 대한 금융공시가 시행되고 있고, 미국 SEC도 2022년 5월 ESG펀드 및 투자자문사에 대한 금융공시 기준을 내놓았다.

국내에서도 2023년 3월부터 ESG펀드 관련 공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학계, 자산운용업계와 함께 테스크포스(TF)를 출범하였고, 지난 10월5일 금융위원회는 이 TF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ESG펀드에 대한 공시기준'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펀드 명칭에 "ESG"를 포함하고 있거나, 투자설명서 상 투자목적·전략 등에 ESG를 고려하고 있음을 표시·기재하는 등 스스로 'ESG'임을 표방하는 펀드는, 증권신고서에 투자목적·전략, 운용능력, 투자위험 등 중요정보와 ESG 연관성을 사전 공시하고,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정기적으로 운용 경과를 보고'해야 하는 것이다. 이 기준은 개정 이후 설정되는 신규 펀드뿐만 아니라 기존 펀드에도 적용되며, 10월 내 관련 기준 및 서식 개정을 완료하고, 업계의 준비기간(2개월)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 집중심사기간(2개월)을 거쳐 내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최근 ES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ESG펀드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ESG펀드는 투자 과정에서 기업의 재무정보와 ESG정보를 함께 반영해야 하므로 운용수수료가 다른 펀드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 과정에서 자산운용사가 실제 ESG요소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으면서 ESG펀드라 포장하는 그린워싱 또는 ESG워싱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늦은 감은 있지만 국내의 'ESG펀드의 공시 기준'이 마련된 것은 환영할 일이고, 이를 투자자는 사전 발표된 정보를 기초로 투자 결정을 할 수 있고 자산운용사는 책임 있는 운용을 함으로써 그린워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llegible]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지속가능성(ESG) 공시 기준 발표

지난 6월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재단에서 설립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는 세계 최초로 국제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서를 발표했다. 이 기준서는 일반 요구사항(General Requirements for Disclosure of Sustainability-related Financial Information)인 IFRS S1, 기후 관련 공시 요구사항(Climate-related Disclosure)인 IFRS S2로 구성되어 있다. ISSB는 IFRS S1과 S2에 이어 물, 생물다양성 등 다양한 지속가능성 부문으로 공시 영역 및 프레임워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

graph LR
    A[IFRS S1  
일반요구사항  
Icon: Checklist] --- B[단기, 중기,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자본 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기회 공시 요구]
    B --- C[IFRS S2  
기후관련공시  
Icon: Earth and Thermometer]
    C --- D[산업간 및 산업별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 공시를 요구]
  
```

한편, 국내에서도 ESG공시의 국제동향 등을 고려하여 국내기업의 ESG공시 의무화 방안과 일정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2021년 금융위원회에서는 기업의 ESG공시 강화 방안 등을 담은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 방안'에서 ESG공시 대상을 1단계 2025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2027년 자산 1조 원 이상, 2029년 5천억 원 이상, 2030년까지는 전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하는 ESG공시 단계적 의무화 일정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0월 ESG공시 의무화를 2026년 이후로 1년 이상 유예한다고 밝혔다.

표 12 글로벌 공시제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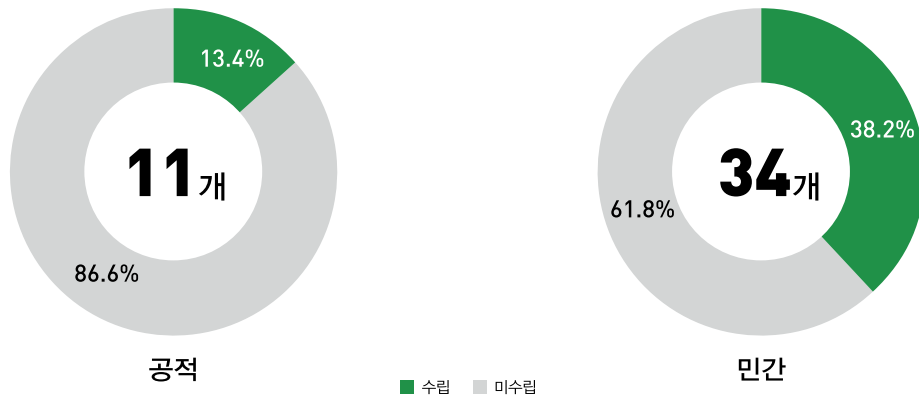
		EU(유럽연합)	US(미국)	IFRS ISSB 국제기구
차이점	공시기준 명칭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ESRS)	Climate-Related Disclosure/ SEC	IFRS S1, S2
	대상	CSRD대상이 되는 기업	모든 상장사 및 향후 비상장 자산 포함 SEC기준이 적용되는 모든 정보공개 대상기업	국가별 자발적 기준
	적용 범위	ESG전반(일반, 전략, 거버넌스 및 중요성 평가 공시 요구 사항 등)	기후관련 공시(일반사항/온실가스 배출량/재무재표 영향/적용방식)	기후관련 공시(점차 ESG전반으로 확대 예정)
	주요 특징	이해관계자 관점(이중 중대성)	투자자 관점(단일 중대성)	투자자 관점(단일 중대성)
	시행 시기	2025년 공시(회계연도 2024년)	2023년 4분기 확정 예정	2025년 공시(회계연도 2024년)
공통점	공시 위치	재무재표를 포함한 일반목적재무보고서(사업보고서)의 일부로 공시(연결기준, 연 1회 회계연도 종료)		
	권고안 내용	기후공시는 TCFD 권고안 반영		
	시행 시기	2025년 이전 전체 상장사 대상 의무화		
	공시 방법	ESG공시 정보의 디지털화를 통한 비교 가능성 및 이용 가능성 확대		

표 13 ESG위성 사례

해외	국내
<p>1) 도이치뱅크 계열사인 DWS</p> <p>- '2020년 지속가능보고서'를 통해 전체 운용 중인 자산 9천억 달러 중 절반 이상을 ESG 기준에 따라 투자했다고 밝힘. 그러나 "DWS의 지속가능성 자산이 과대포장됐다"는 내부 고발에 따라 SEC과 독일 금융당국은 ESG 투자 자산 과대평가 의혹 조사에 나섬.</p> <p>- ESG 관련 상품으로서 적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ESG 상품으로 제시하는 등 허위 공시 혐의로 조사에 착수</p> <p>2) 골드만삭스</p> <p>ESG펀드의 위성 위반으로 4백만 달러 벌금을 부과. 또한 '17년~20년까지 ESG 관련 정책 및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거나 준수하지 않은 위반이 있음을 지적</p>	<p>1) A지주회사</p> <p>2021년 3,200억 원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 이 중 1,300억 원을 향후 조인트벤처를 함께 설립할 해외 에너지 기업의 지분투자에 배부하고 최종보고서를 제출. 다만, 지분투자에 따른 환경성과 보고 산출의 어려움으로 국내 관련 사업의 성과를 예시로 환경영향의 보고를 같음함. 그러나 지분투자 대상이 에너지 기업이기는 하나 실질적인 온실가스 저감 혹은 녹색경제활동에 기여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비금융지주회사의 사업성격상 향후 조인트벤처 설립 시 의사결정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지분확대용 자금조달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고, 환경성과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린위성의 우려 사례로 분석.</p>

ESG금융 목표 현황

그래프 15 공적 및 민간 금융 기관 ESG목표 설정 비율



이번 조사 응답 기관 171개 중 45개 기관(26%)이 ESG금융 목표를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은 32개 기관(24%), 2021년은 44개 기관(26%)이었다.

2020년부터 2022년 보고를 살펴보았을 때 금융기관은 대체로 2021년에 목표를 수립한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신규 목표 수립 기관은 16개이다. 국민연금도 2021년 ESG금융 목표를 수립했다.

목표 수립 기준은 '기타'를 선택한 기관이 17개, '목표 연도 잔액기준'이 10개, '목표 연도 투입금액' 7개, '투입자금 누적금액' 5개로 나타났다. 목표 기준을 보고하지 않은 기관은 6개였다. 목표 연도가 모두 달라 명확한 비교는 불가하지만, 총 목표 금액 합계는 '기타' 기준이 283조, '잔액' 기준이 68조, '투입자금 누적금액' 기준이 54조, '투입금액' 기준이 200조 원이다.

목표 연도와 목표 기준이 모두 상이해 금융기관별 목표를 비교하기는 어려웠다. ESG금융 목표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ESG보고서에 포함하는 금융기관이 늘어나고 있으며, ESG금융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미래 자금 흐름을 예측하고 ESG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일관된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표 14 섹터별 개별 ESG금융 목표 수립 기관¹

단위: 조 원

		금융기관명	목표 연도	목표 금액	목표 기준
공적	연기금	신용보증기금	2023년	2.68	기타
		공무원연금기금	2023년	1.40	잔액기준
		국민연금기금	2023년	—	기타
	공적은행	한국수출입은행	2030년	206.17	기타
		KDB산업은행	2030년	13.20	투입금액
		중소기업은행	2030년	9.30	투입금액
	기타 공적금융	한국주택금융공사	2027년	173.90	투입금액
		우정사업본부	2023년	11.00	잔액기준
		예금보험공사	2023년	1.35	기타
민간	은행	KB국민은행	2023년	28.63	잔액기준
		하나은행	2030년	28.00	투입자금 누적금액
		NH농협은행	2030년	17.68	기타
		우리은행	2023년	9.04	투입자금 누적금액
		신한은행	2023년	1.02	투입자금 누적금액
	보험사 (생명보험)	한화생명보험	2030년	5.5–6.5	기타
		삼성생명보험	2030년	20.00	잔액기준
		미래에셋생명보험	2030년	운용자산의 7%	투입금액
	보험사 (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2030년	15.5	투입자금 누적금액
		KB손해보험	2030년	4.42	잔액기준
		NH농협손해보험	2030년	2.04	기타
	증권사	미래에셋증권	2025년	45.00	기타
		KB증권	2023년	1.36	잔액기준
		다올투자증권	2030년	1.10	투입금액
	자산운용사	NH-Amundi자산운용	2023년	0.43	기타
		BNK자산운용	2023년	0.27	잔액기준
		우리글로벌자산운용	2023년	0.13	기타

1. 섹터별 목표 금액 상위 기관 3개를 가져왔으며, 민간 은행의 경우 예외적으로 목표를 수립한 5개 모두 가져옴.

민간 5대 금융그룹의 ESG금융 목표

표 15 민간 5대 금융그룹 2023년 ESG금융 목표

단위: 조 원

	목표 연도	목표 금액	목표 기준
NH농협금융지주	2030	30.1	기타
우리금융그룹	2030	100.0	투입자금 누적금액
신한금융그룹	2030	30.0	투입자금 누적금액
KB금융그룹	2030	50.0	잔액기준
하나금융그룹	2030	60.0	투입자금 누적금액

국내 민간 5대 금융그룹은 모두 3년째 ESG금융 목표를 보고하고 있다. 우리, KB, 하나 금융그룹은 3년 동안 같은 목표를 보고하고 있으며, 신한은 2022년 목표 변경 이후 2년 동안 같은 목표를 보고했다. NH농협금융그룹은 3년 모두 다른 목표를 보고했다.

5대 금융그룹 중 3개 기관이 목표 기준을 투입자금 누적금액으로 설정했다. 각 금융그룹의 목표를 예상 연 평균 신규 투입금액을 환산하면 우리 10조, 신한 3조, 하나 7.5, KB 16.8조 순이다. AUM 대비 연 평균 신규 투입 금액 비중은 우리(2.52%), 하나(1.69%), 신한(0.56%), KB(0.3%) 순이었으며, NH농협금융그룹의 경우 목표 기준이 혼합되어 있어 예상 투입 금액을 산정할 수 없었다.

우리를 제외한 4개 금융그룹은 모두 ESG금융 규모가 꾸준히 증가했다. 신한, NH, 우리는 각 27조, 13조, 12조로 2021년에 ESG금융 규모가 크게 늘었으며, KB와 하나는 각 9조, 7조로 2022년에 증가세가 더 두드러졌다.

우리는 2021년에는 규모가 증가했지만 2022년에 3.67조 감소했다. 우리금융그룹의 ESG금융 규모의 98%는 우리은행이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은행의 ESG대출 규모가 전년 대비 약 4.5조 가량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대출은 사회(S) 부문의 기술금융 금액이 크게 감소했다.

부록

설문조사 및 분석 방법론	42
ESG금융 응답기관	43

설문조사 및 분석 방법론



조사 대상

- 국내 공적, 민간 금융기관 전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진행



설문조사 방법

- 공적 금융기관: 국회 이용우의원실을 통해 공적 금융기관이 속해 있는 주무부처에 설문지 발송
- 민간 금융기관: 국회 이용우의원실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자료 요청했으며,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사로부터 자료 취합



조사 내용

- 조사기간: 2023년 6월 - 7월
- 요청자료: (2022년 말 기준) 자산현황, 연도별 ESG금융 전체 현황, ESG대출 현황, ESG투자(사회책임투자) 현황, ESG금융상품 현황, ESG관련 채권발행 현황, ESG금융목표 활성화 및 목표



설문 응답기관

- 총 171개 기관 응답
- 공적 금융기관: 82개
- 민간 금융기관: 89개 (은행 9개, 생명보험사 16개, 손해보험사 10개, 증권사 32개, 자산운용사 22개)



추가 자료조사

- ESG채권발행: 위 조사자료와 함께 한국거래소의 '사회책임투자채권'에서 2018년부터 2023년 6월 말까지 공시된 데이터 기준으로 진행
- ESG공모펀드: 모닝스타 디렉(Morningstar Direct) 자료를 참조했으며, 각 공모펀드의 ESG투자 해당 여부는 투자설명서상의 정보를 바탕으로 모닝스타가 자체적으로 판단.



종합분석 시 사용 데이터 및 방법

- 본 보고서의 분석에는 취합데이터 가운데 2020년 말 기준의 ESG금융유형별(ESG대출, ESG투자, ESG금융상품, ESG채권발행)데이터를 기본 지표로 사용
- ESG대출: 대출 유형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자료 취합하여 분석에 사용
- ESG투자: 투자 유형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자료 취합하였으나, 위탁운용자산의 중복계상을 막기 위해 자산운용사가 수탁 받아 운영하는 자산은 ESG투자 규모 산정에서 제외하여 분석
- ESG금융상품: 금융상품 유형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자료 취합하여 분석에 사용
- ESG채권발행: 취합데이터와 '사회책임투자채권'에 공시된 데이터를 취합하여 분석하였으나, 채권발행의 중복계상을 막기 위해 금융권에서 입력한 '채권명'과 '종목명'을 비교하여 중복 데이터는 제외하여 분석에 사용
- 연도별 분석: 2018년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제공된 ESG금융 현황의 데이터 사용
- E·S·G이슈별 분석: 취합데이터 가운데 E·S·G로 구분된 데이터만 사용

ESG금융 응답기관^{1, 2}

기관(기금)명	주무부처	자사 ESG금융 목표				K-분류체계		녹색채권 가이드 라인
		목표 여부	목표 연도	목표 기준	목표 금액 (억 원)	적용계획 여부	적용항목	적용계획 여부
공적금융기관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미응답	—		—	X	—	X
공무원연금기금	인사혁신처	O	2023년	잔액기준	13,980	X	—	X
과학기술인공제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X	—		—	O	2	O
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X	—		—	X	—	X
국립해양과학관	해양수산부	미응답	—		—	X	—	미응답
국립해양박물관	해양수산부	X	—		—	미응답	—	미응답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수산부	X	—		—	X	—	X
국민연금기금	보건복지부	O	2023년	기타	—	X	—	X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미응답	—		—	미응답	—	미응답
군인복지기금	국방부	미응답	—		—	미응답	—	미응답
군인연금기금	국방부	미응답	—		—	미응답	—	미응답
근로복지진흥기금	고용노동부	미응답	—		—	미응답	—	미응답
금강수계관리기금	환경부	미응답	—		—	미응답	—	미응답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부	O	—		—	O	2	O
낙동강수계관리기금	환경부	미응답	—		—	미응답	—	미응답
남북협력기금	통일부	미응답	—		—	미응답	—	미응답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림축산식품부	미응답	—		—	미응답	—	미응답
농어업재해재 보험기금	농림축산식품부	미응답	—		—	미응답	—	미응답
농업농촌공익 기능증진직접 지불기금	농림축산식품부	미응답	—		—	미응답	—	미응답
농지관리기금	농림축산식품부	미응답	—		—	미응답	—	미응답
대외경제협력기금	기획재정부	미응답	—		—	미응답	—	미응답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행정안전부	X	—		—	X	—	X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X	—		—	X	—	X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청	미응답	—		—	미응답	—	미응답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산업통상자원부	X	—		—	X	—	X
보훈기금	국가보훈처	미응답	—		—	미응답	—	미응답
복권기금	기획재정부	미응답	—		—	미응답	—	미응답
부산항만공사	해양수산부	X	—		—	O	4	O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교육부	X	—		—	X	—	X
사학진흥기금	교육부	X	—		—	X	—	X

1. 금년도 자료 제출기관만 표기. "미회신"기관 미표기

2. 1: 대출 / 2: 투자 / 3: 상품 / 4: 채권발행

기관(기금)명	주무부처	자사 ESG금융 목표				K-분류체계		녹색채권 가이드 라인
		목표 여부	목표 연도	목표 기준	목표 금액 (억 원)	적용계획 여부	적용항목	적용계획 여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기획재정부	X	-		-	X	-	X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산업통상자원부	미응답	-		-	미응답	-	미응답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고용노동부	미응답	-		-	X	-	X
새마을금고중앙회	행정안전부	X	-		-	X	-	X
석면피해구제기금	환경부	미응답	-		-	O	3	O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부	X	-		-	X	-	X
수산물안전기금	해양수산부	미응답	-		-	미응답	-	미응답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국가보훈처	미응답	-		-	미응답	-	미응답
시청자미디어재단	방송통신위원회	X	-		-	X	-	X
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O	2023년	기타	26,750	O	1, 4	O
양곡증권정리기금	농림축산식품부	미응답	-		-	미응답	-	미응답
언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X	-		-	X	-	X
여수광양항만공사	해양수산부	X	-		-	X	-	X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	환경부	미응답	-		-	미응답	-	미응답
영화발전기금	문화체육관광부	X	-		-	O	3	X
예금보험공사	금융위원회	O	2023년	기타	13,500	X	-	X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금융위원회	X	-		-	X	-	X
외국환평형기금	기획재정부	미응답	-		-	미응답	-	미응답
우정사업본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O	2023년	잔액기준	110,000	O	2	O
울산항만공사	해양수산부	X	-		-	O	2	O
원자력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X	-		-	X	-	X
인천항만공사	해양수산부	X	-		-	O	4	O
임금채권보장기금	고용노동부	미응답	-		-	X	-	X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국토교통부	미응답	-		-	미응답	-	미응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고용노동부	미응답	-		-	X	-	X
전력산업기반기금	산업통상자원부	X	-		-	X	-	O
중소기업은행	금융위원회	O	2030년	투입금액	93,000	O	1, 2, 3, 4	O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X	-		-	X	-	X
지역신문발전기금	문화체육관광부	X	-		-	X	-	X
축산발전기금	농림축산식품부	미응답	-		-	미응답	-	미응답

기관(기금)명	주무부처	자사 ESG금융 목표				K-분류체계		녹색채권 가이드 라인
		목표 여부	목표 연도	목표 기준	목표 금액 (억 원)	적용계획 여부	적용항목	
한강수계관리기금	환경부	미응답	—		—	미응답	—	미응답
한국광해광업공단	산업통상자원부	X	—		—	X	—	X
한국교직원공제회	교육부	X	—		—	O	2	O
한국무역보험공사	산업통상자원부	O	2023년	투입자금 누적금액	2,339	X	—	X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송통신위원회	X	—		—	X	—	X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X	—		—	X	—	X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X	—		—	X	—	X
한국벤처투자	중소벤처기업부	미응답	—		—	미응답	—	미응답
한국수산자원공단	해양수산부	X	—		—	미응답	—	미응답
한국수출입은행	기획재정부	O	2030년	기타	2,061,660	X	—	X
한국어촌어항공단	해양수산부	X	—		—	X	—	X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융위원회	O	2027년	투입금액	1,739,000	X	—	O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해양수산부	X	—		—	X	—	X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수산부	X	—		—	X	—	X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수산부	미응답	—		—	미응답	—	미응답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수산부	X	—		—	X	—	X
한국해양조사협회	해양수산부	X	—		—	X	—	X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양수산부	X	—		—	O	1, 2, 4	O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X	—		—	X	—	X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부	X	—		—	X	—	X
FTA기금	농림축산식품부	미응답	—		—	미응답	—	미응답
KDB산업은행	금융위원회	O	2030년	투입금액	132,000	O	1, 2, 4	O
민간금융기관								
은행								
광주은행	JB금융그룹	X	—		—	O	1, 2, 3, 4	O
농협중앙회	NH농협금융그룹	X	—		—	X	—	X
부산은행	BNK금융그룹	X	—		—	X	—	X
신한은행	신한금융그룹	O	2023년	투입자금 누적금액	10,217	O	1, 2, 3, 4	O
우리은행	우리금융그룹	O	2023년	투입자금 누적금액	90,400	O	1, 2, 3, 4	O
하나은행	하나금융그룹	O	2030년	투입자금 누적금액	280,000	O	1, 3, 4	O
BNK경남은행	BNK금융그룹	X	—		—	O	1, 3, 4	O
KB국민은행	KB금융그룹	O	2023년	잔액기준	286,337	O	1, 2, 3, 4	O

기관(기금)명	주무부처	자사 ESG금융 목표				K-분류체계		녹색채권 가이드 라인
		목표 여부	목표 연도	목표 기준	목표 금액 (억 원)	적용계획 여부	적용항목	
NH농협은행	NH농협금융그룹	O	2030년	기타	176,815	O	1, 2, 3, 4	O
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교보생명그룹	X	-		-	O	1, 2, 4	O
동양생명보험	중국다자보험그룹	X	-		-	X	-	O
메트라이프생명	미국메트라이프	X	-		-	X	-	X
미래에셋생명보험	미래에셋그룹	O	2030년	투입금액	운용자산의 7%	O	2	O
삼성생명보험	삼성그룹	O	2030년	잔액기준	200,000	O	1, 2, 3	O
신한라이프	신한금융그룹	O	2023년	기타	3,125	O	1, 2, 3	O
한화생명보험	한화그룹	O	2030년	기타	5.5~6.5조원	O	1, 2, 3, 4	O
흥국생명보험	태광그룹	X	-		-	X	-	X
ABL생명보험	중국다자보험그룹	X	-		-	O	1, 2	O
AIA생명보험	AIA그룹	X	-		-	X	-	X
DB생명보험	DB그룹	X	-		-	X	-	X
DGB생명보험	DGB금융그룹	O	2023년	투입금액	1,000	O	1, 2	O
IBK연금보험	IBK기업은행	O	-		-	X	-	미응답
KB라이프생명보험	KB금융그룹	O	2023년	잔액기준	5,258	X	-	X
KDB생명보험	KDB산업은행	X	-		-	O	2	O
NH농협생명보험	NH농협금융그룹	O	-		-	O	1, 2, 3, 4	O
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X	-		-	X	-	X
삼성화재해상보험	삼성그룹	O	2030년	투입자금 누적금액	155,000	O	1, 2, 3	O
코리안리재보험	코리안리재보험	O	2050년	잔액기준	12,700	O	1, 2, 4	O
한화손해보험	한화그룹	O	2022년	기타	1,000억 원	X	-	O
현대해상화재보험	현대해상화재 보험	X	-		-	O	1, 2, 3	O
흥국화재해상보험	태광그룹	O	-	기타	-	X	-	X
DB손해보험	DB그룹	O	-		-	X	-	X
KB손해보험	KB금융그룹	O	2030년	잔액기준	44,246	O	2	O
NH농협손해보험	NH농협금융그룹	O	2030년	기타	20,398	O	1, 2, 3, 4	O
SGI서울보증보험	서울보증보험	X	-		-	O	2,3	O
증권사								
교보증권	교보생명그룹	X	-		-	O	1, 2, 3, 4	O
다올투자증권	다올금융그룹	O	2030년	투입금액	11,000	O	1, 2, 3, 4	O
대신증권	대신금융그룹	X	-		-	X	-	X
디에스투자증권		X	-		-	O	2	O

기관(기금)명	주무부처	자사 ESG금융 목표				K-분류체계		녹색채권 가이드 라인
		목표 여부	목표 연도	목표 기준	목표 금액 (억 원)	적용계획 여부	적용항목	
리딩투자증권		X	-		-	O	2	O
메리츠증권	메리츠금융그룹	X	-		-	X	-	X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그룹	O	2025년	기타	450,000	X	-	O
부국증권	한일그룹	O	2025년	잔액기준	120	O	1, 2, 3	O
삼성증권	삼성그룹	O	2025년	기타	100개	O	2, 3, 4	O
상상인증권	상상인금융그룹	미응답	-		-	미응답	-	미응답
신영증권		X	-		-	O	2, 3, 4	O
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그룹	O	2023년	투입금액	2,134	O	1, 2, 3, 4	O
유안타증권	유안타금융그룹	X	-		-	X	-	X
유진투자증권	유진그룹	X	-		-	O	2, 3	O
유화증권		X	-		-	O	2	O
이베스트투자증권		X	-		-	O	2	O
카카오페이증권	카카오	X	-		-	O	3	O
케이프투자증권	케이프	X	-		-	X	-	X
코리아에셋투자증권		X	-		-	O	2	X
키움증권	다우기술	X	-		-	X	-	X
하나증권	하나금융그룹	X	-		-	O	1, 2, 3, 4	O
하이투자증권	DGB금융그룹	미응답	-		-	O	-	O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금융 지주	X	-		-	X	-	X
한화투자증권	한화그룹	X	-		-	O	1, 2, 3, 4	O
현대차증권	현대자동차그룹	O	2023년	기타		O	2	O
흥국증권	태광그룹	X	-		-	O	1, 2, 3	O
BNK투자증권	BNK금융그룹	O	2023년		-	O	1, 2	O
DB금융투자	DB그룹	X	-		-	X	-	X
IBK투자증권	IBK기업은행	미응답	-		-	미응답	-	미응답
KB증권	KB금융그룹	O	2023년	잔액기준	13,572	O	1, 2, 3, 4	O
NH투자증권	NH농협금융그룹	O	2025년	기타	10,000	O	1, 2, 3, 4	O
SK증권		O	2023년	기타	40	O	4	O
자산운용								
교보악사자산운용	교보생명그룹	X	-		-	O	3	O
다올자산운용	다올금융그룹	X	-		-	X	-	X
대신자산운용	대신금융그룹	X	-		-	O	2, 3	O
디더블유에스 자산운용	도이치뱅크그룹	X	-		-	O	2	O
마이다스에셋 자산운용		X	-		-	O	3	O
멀티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그룹	X	-		-	O	1, 2, 3	O

기관(기금)명	주무부처	자사 ESG금융 목표				K-분류체계		녹색채권 가이드 라인
		목표 여부	목표 연도	목표 기준	목표 금액 (억 원)	적용계획 여부	적용항목	적용계획 여부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그룹	X	-		-	O	2	O
베어링자산운용	매스뮤추얼	X	-		-	X	-	X
삼성액티브자산운용	삼성그룹	X	-		-	O	2	X
신영자산운용		X	-		-	X	-	X
신한자산운용	신한금융그룹	X	-		-	O	3	O
우리글로벌자산운용	우리금융그룹	O	2023년	기타	1,300	X	-	O
우리자산운용	우리금융그룹	O	2023년		-	O	2, 3	O
트러스트자산운용		X	-		-	O	2, 3	O
하이자산운용	DGB금융그룹	X	-		-	X	-	O
한화자산운용	한화그룹	X	-		-	O	2, 3, 4	O
현대인베스트먼트 자산운용	현대해상화재 보험	X	-		-	X	-	X
흥국자산운용	태광그룹	X	-		-	O	3	O
BNK자산운용	BNK금융그룹	O	2023년	잔액기준	2,686	O	3	O
IBK자산운용	IBK기업은행	X	-		-	O	1, 2	O
KDB인프라자산운용	KDB산업은행	X	-		-	X	-	X
NH-Amundi 자산운용	NH농협금융그룹	O	2023년	기타	4,300	O	3	O

KOREA ESG FINANCE WHITE PAPER 2022